

濟州 德修里戶籍中草 研究

-19世紀 礪山宋氏家를 中心으로-

指導教授 崔槿默

이 論文을 文學碩士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2001年 10月

忠南大學校 大學院
國史學科 韓國史專攻
吳 領 心

140211

吳領心の 文學碩士學位
請求論文을 認准함

2001年 12月

委員長 _____

委員 _____

委員 _____

忠南大學校 大學院

----- 목 차 -----

I. 머리말	-----	1
--------	-------	---

II. 자료와 대상지역

1. 제주도의 호적운영과 덕수리 호적중초	-----	4
2. 덕수리의 사회경제적 환경	-----	9

III. 호적중초와 족보의 내용

1. 입향과 정착	-----	11
2. 신분 · 직역의 변화	-----	12

IV. 礪山宋氏家の 사회 · 경제적 성장

1. 주물업 운영과 경제적 성장	-----	29
2. 통혼관계와 가족구성	-----	30

V. 맺음말	-----	35
--------	-------	----

※ 참고문헌	-----	38
--------	-------	----

※ ABSTRACT	-----	48
------------	-------	----

I. 머리말

호적대장에는 개인의 가족관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 및 혼인, 노비의 소유상태 까지 기록되어 있다. 1930년대 대구호적을 분석한 四方博의 연구 이후, 대부분의 연구가 양반층의 현저한 증가, 평민·노비층의 감소추세를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위계층의 상향이동에 의한 신분제의 붕괴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¹⁾

지금까지 호적을 이용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 초기에는 각각의 직역이 지니는 신분적 의미가 가변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채, 신분과 직역을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여, 특정지역의 호적대장에 나타나는 신분·직역의 통계적 분석을 통한 신분·직역의 변화 비율을 도출함으로써 그 변동 양상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근래에 들어서는 ‘호적대장에 담긴 구성원과 ‘戶’의 편제원리에 대한 연구성과에서 보듯이 호적대장의 ‘戶’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²⁾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호적대장의 기록이 당시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시작하고 있다. 즉 一滿戶·一滿口를 인정하지 않은 戶政은 이념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호적대장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연구도 있지만³⁾ 모든 호를 다 수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호적제도의 문란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가적인 목적은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⁴⁾

1) 조선후기의 호적대장 연구 동향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를 들면 다음과 같다.

김민걸, 「조선후기 신분사 연구 현황」 『韓國中世社會解體期の 諸問題』(下), 한울, 1987; 金錫禧, 「朝鮮後記 地方社會史 研究動向과 課題-戶籍大帳 研究를 中心으로」 『한국문화연구』 5, 부산대한국문화연구소, 1992; 鄭杜熙, 「朝鮮後期 戶籍研究의 現況과 課題」 『韓國史研究』 101, 한국사연구회, 1998; 林學成, 「17·18세기 丹城地域 주민의 身分變動에 관한 研究」 인하대박사학위논문, 2000

2) 정진영, 「18-19세기 호적대장 ‘호구’기록의 검토」 『대동문화연구원 제43회 동양학 학술회의 발표요지. 200.12.9』; 「19세기 호적대장 ‘호(戶)’와 그 경제적 기반」 『역사와 현실』 39호, 2001; 김건태 「호적대장을 통해 본 戶의 구성과 편제원리」 『제48회 동양학 학술회의 발표요지. 2001 11.10』; 정해은 「호적대장에 등재된 호의 출입」 『제48회 동양학 학술회의 발표요지. 2001 11.10』

3) 호적대장의 신빙성과 연구방법론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최승희, 「조선후기 ‘유학’·‘학생’의 신분사적 의미」 『국사관논총』 1, 국사편찬위원회, 1989; 이태진, 「조선후기 양반사회의 변화」 『한국사회발전사론』 일조각, 1992.

4) 호적이 현실의 호구를 그대로 수록하지 않고, 일부만 등재했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정진영, 「18세기 호적대장 ‘호구’기록의 검토-‘族譜’·‘洞案’類와의 비교-」 『이수건 교수정년기념논총』, 2000; 「18~19세기 호적대장 ‘戶口’기록의 검토」 『제43회 동양학학술회의발표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한국역사연

호적을 통해 수 세대에 걸쳐 개개인의 출생, 혼인, 가족 구성, 사회활동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신분이나 직역, 가문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많지 않다. 다만 특정계층인 향리층⁵⁾이나 生鐵匠·水鐵匠 등 工匠의 최초의 직역에 주목하여 그들의 세대가 내려오에 따라 上位 職役化하는 과정을 살핀 연구⁶⁾나 私奴 興宗과 興龍 일가를 중심으로 그들과 관련을 맺고 있던 양반, 평민, 노비들의 삶의 구조를 다룬 연구⁷⁾들이 있다. 또한 호적대장을 이용하여 납속인의 실태를 살핀 연구나, 家系上의 선·후세대간 또는 동일인의 신분 직역의 변동을 살핌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신분·직역의 변동양상을 살핀 연구⁸⁾와 같은 실증적으로 접근한 연구들은 많지가 않을뿐더러, 납속인들의 경제적 기반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 없이 납속품직의 변화되는 양상만을 살피고 있다.⁹⁾

본고에서 다룬 제주지역의 호적연구는 지주전호제가 발달하지 못한 조선후기 제주지역에서 牛馬사육을 통해 상당한 부의 기반을 다져 유력 가문으로 성장한 경주김씨가 호구단자를 분석한 연구¹⁰⁾, 호주의 직역을 분석하여 통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제주지역주민의 신분구조와 변동양상을 다루면서 鄉吏層과 畚漢의 家系の 직역변동을 구체적으로 살핀 연구가 있다.¹¹⁾ 일부이기는 하지만 덕수리 호적중초에 각각의 戶를

구회, 2000

- 5) 최승희의 연구는 호적대장을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호적대장에 기록된 주호의 직역만을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조선후기 신분변동을 확인했던 기존의 연구방법을 실증적으로 비판하고, 가문별로 그 변동양상을 추적한 것이다. (최승희, 「朝鮮後期 鄉吏身分變動與否考—鄉吏家門 古文書에 의한 事例研究—」 『金哲俊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지식산업사, 1983; 「朝鮮後期 鄉吏身分變動與否考(2)—草溪卞氏鄉吏家門의 古文書에 의한 事例研究—」 『韓國文化』 4, 1983)
- 6) 山内弘一 「工匠의 行방—丹城縣 戶籍大帳에 의한 生鐵匠·水鐵匠의 事例研究—」 『朝鮮後期の慶尙道丹城縣における社會動態の研究(1)』 『學習院大學藏 朝鮮戶籍大帳の基礎的研究(2)』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 調査研究報告 NO. 27, 1990)
- 7) 백승중 「慶尙道 丹城縣 都山面 文太里의 私奴 興宗과 興龍一家—1678년부터 1789년까지—」 『震檀學報』 70, 1990
- 8) 이준구, 「朝鮮後期 兩班身分 移動에 관한 研究—丹城帳籍을 중심으로—」 (上·下) 『역사학보』 96·97, 1982·1983; 「신분직역변동의 실제」 『조선후기 신분직역변동연구』 일조각, 1993
- 9) 서한교, 「17·18세기 丹城地方 納贖人의 實態와 身分變動」 『歷史教育論集 23·24합집—水如黃海鵬教授停年退任紀念史學論叢』 대구 역사교육학회, 1999
- 10) 경주 김씨가(김만일)는 말 사육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임진왜란 당시 전마 부족에 시달리던 조선정부에 戰馬를 바침으로써, 집안 대대로 감목관직을 임명받는 특권을 확보하였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말 사육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지방 수령들의 수탈과 방해를 뛰어넘는 위치에 오를 수 있었다. (조성윤, 「조선후기 제주도 지배세력에 관한 연구」 『濟州島史研究』 2, 1992)
- 11) 김동전, 「18·19세기 濟州島의 身分構造 研究—大靜縣 「戶籍中草」를 중심으로—」

大·中·小·殘·獨戶로 표기되고 있는데¹²⁾, 이는 경제력을 배경으로 하여 각각의 호를 5등급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고 보는 연구도 있다.¹³⁾ 1801년의 公奴婢 혁파로 인해 제주지역 또한 신분변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즉, 18세기 공노비로 존재했던 계층들이 당시 그들을 신분적 굴레로 얽어매었던 신분 열등의식을 해소시키려는 한, 호적제 운영의 폐단은 18세기에 비해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호적중초에 관한 연구는 마을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호적작성에 관련된 직임을 맡게되면 암묵적인 합의하에 자신의 집안에 대해선 얼마든지 윤색이 가능한데도 이 점에 대해선 문제시하지 않고, 호적자료상에 나타나는 직역에 의해 신분 구분을 하고 있다. 또한 신분상승의 방법으로 양반의 족보를 사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제주 지방의 경우 그런 예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본고는 다른 지역에 발견되는 郡縣단위의 호적대장이 아닌 面里단위의 호적중초와 호적중초상에 나타나지 않는 선대의 기록에 대해선 족보를 이용하여, 덕수리에서 처음으로 주물업을 시작했다고 전해지는 宋世萬 일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들이 주물업 운영을 통해 경제적 부를 획득한 후, 가족구성원들의 통혼권의 형성되는 과정과 이들의 직역·신분의 변화 모습을 통해 이들의 어떻게 사회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자료로 이용할 덕수리 호적중초가 100여 년 이상에 걸쳐 이어진 것이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들의 가족구성 및 직역의 변화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족보의 위조여부, 편보 또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며, 족보의 기재양식과 족보의 초간연대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족보와의 비교를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95

12) 대, 중, 소, 잔, 독호가 표기된 경우는 1804년(가경9년), 1806년(가경11년), 1809년(가경14년), 1812년(가경17년), 1816년(가경21년), 1837년(도광17년)이다.

13) 大戶: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 中戶: 경제적 여유는 별로 없을지라도 생계유지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집, 小戶: 비교적 가난한 집, 獨戶: 1인이 거주하는 극빈자, 殘戶: 경제력이 미약하여 생계유지조차 원만하지 않은 집으로 설명하고 있다. (백승중, 「19세기 초 제주도 대정현 덕수리의 유동적인 가족 구조-儒敎的 가족관념과 동떨어진 사회 현실-」 한국고문서학회 발표요지문, 1999. 4)

조선초기 호구의 대, 중, 소, 잔, 잔잔호의 구분 기준은 외방에서는 전결수의 다과에 따라 대호(50결 이상), 중호(30결 이상), 소호(10결 이상), 잔호(6결 이상), 잔잔호(5결 이하)로, 구분했지만 한성부에서는 가옥의 규모에 따라 대호는 40칸 이상, 중호는 30칸이상, 소호는 10칸이상, 잔호는 5칸 이상, 잔잔호는 4칸 이하로 설정하였고, 이러한 구분 기준은 조선후기에 호당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바뀐 것으로 보고 있다. (고동환, 「조선후기 서울의 인구추세와 도시문제 발생」 『역사화원실』 28, 한국역사연구회, 1998)

덕수리 호적중초에서는 가구원수가 9인 이상이면 대호, 5-8인이면 중호, 3-4인은 소호, 2인이면 잔호, 1인일 경우는 독호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해 호적중초가 호적대장에 비해 얼마만큼 사실적인가에 대한 해명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II. 자료와 대상지역

1. 제주도의 호적운영과 덕수리 호적중초

호적자료는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신분질서 및 그 변동양상에 대한 연구에 있어 주된 자료가 된다. 이들 자료가 직역기재의 비실제성, '직역'과 '신분'의 불일치, 유아 및 女息 인구나 평민층의 많은 漏籍등과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료만큼 적어도 1세기 이상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어느 한 지역에 거주한 주민의 신분구성의 변화모습, 한 개인 및 가문의 신분·직역의 변화여부를 살필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지금까지 제주지역의 호적 작성은 覈法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타 지역과 달리 비교적 자세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籍吏와의 결탁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에서 寬法에 따라 의도적으로 호적에서 호구를 누락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것이다.¹⁴⁾ 그리고 장적과 별도로 각 마을별 호적중초도 철저하게 작성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주지역의 경우 군현의 인구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호적대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제주지역에서 발견되는 것 중에 관에서 정리한 것이 아닌, 마을별로 기록해 놓은 호적중초들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이 자료들은 牧 또는 縣단위의 대장과 비교해 볼 때 자료가 말해주는 정보의 양은 매우 적다.¹⁵⁾

본고에서 자료로 이용될 제주 대정현 덕수리 호적중초의 특징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¹⁶⁾ 먼저 1804-1908년에 이르기까지 100여 년에 걸쳐 작성되었기

14) 호적대장의 작성법으로는 寬法과 覈法이 있다. 寬法은 戶 또는 口를 모두 기록하지 않고, 徭役과 賦稅를 할당하기 위해 그 대강을 기록한 것이며, 覈法은 戶口를 빠짐없이 기록한 것으로, 덕수리 호적중초는 覈法에 의해 작성되어 호구의 누락율을 거의 발견할 수 없다.

15) 조성윤, 「조선후기 제주도지방의 신분구조」 『한국의 전통사회와 신분구조』, 문학과지성사, 1991

16) 첫째, 1804-1908년에 이르기까지 100여 년 간에 걸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인구구성, 신분변동, 촌락구조의 성격, 혼인형태 등 향촌사회의 다양한 면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근대적 호적법 성립이후의 호적중초를 통해서는 호적기재 양식의 변천을 아울러 살펴볼 수가 있다. 둘째, 호적중초를 통해 그 마을의 변천과정 뿐만 아니라 해당

때문에 개개인의 직역변동양상을 직접적으로 살필 수가 있으며, 다행히도 대부분의 구성원들의 호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아 통호의 변화가 심하지 않았다. 특히 남자들인 경우는 개개인의 이름과 나이가 자주 바뀌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균역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나라는 추측이 든다. 또한 이혼, 재혼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전처의 가족까지 같은 호에 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았으며, 결혼한 자녀들이 부모의 호에서 분리를 하게 되면 그 부모의 집과 가까운 곳에 거주를 하고 있었다. 이처럼 100여 년 간에 걸쳐 작성되었기 때문에 인구구성, 신분변동, 촌락구조의 성격, 혼인형태 등 향촌사회의 모습을 다양하게 살펴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호적중초의 특징을 살려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호적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호적중초¹⁷⁾는 마을에서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호적작성에 관여하는 사람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자신의 집안을 어느 정도 윤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덕수리의 호적중초는 주호를 기준으로 크게 4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주호 부부와 직계존비속, 형제, 사위, 외손 등 일가 친척으로 이루어진 방계 가족과 차입¹⁸⁾을 두는 경우이다. 다음의 표는 그 실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표-1. 덕수리 호적중초에 등재된 구성원의 혈연관계> (단위 : 구)

읍의 面里制의 변천을 살펴볼 수 있다. 셋째, 嚴法에 의해 작성되어 호구의 누락율을 거의 발견할 수 없다. 넷째, 나이를 높여 老職을 피하는 경우, 改簽을 염려하여 나이를 낮추는 경우, 신분을 冒錄·冒稱하는 경우 등을 모두 찾아내어 朱書로 정정하고 있다. 다섯째, 타 지역에 비해 16세 이하의 인구과약에 충실하고 있고, 새로 태어난 인구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 여섯째, 직계가족이 아니거나 혹은 借入者는 당사자의 父를 밝히고 있다. 일곱째, 신체적 장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濟州大靜縣德修里戶籍中草』 解題,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3)

17) 中草者 草本也 其循實 勝於臺帳(『牧民心書』 戶典 六條, 戶籍條)으로, 戶籍中草는 일명 戶籍重草·戶口中草·戶籍仲草·戶口仲草 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중초는 호적을 최종 편찬하는데 토대가 된 초안이며, 마을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심사 정리하였다. 덕수리의 경우는 存位, 別有司, 監考, 厘正등이 이 작업에 관여하였다.

호적중초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들이 참고된다.

손빛穆, 「19세기 말에 작성된 南原 屯德坊의 戶籍中草와 그 성격」 『고문서연구』 3, 한국고문서학회, 1992; 梁晉碩, 「濟州河原里戶籍中草解題」 (1), 서울대 규장각, 1992; 고창석 「濟州德修里戶籍中草」 (1),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3

18) 借入은 남의 집을 일정기간 빌려 지내는 자로 보는 견해와 남의 집에서 얹혀지내는 일꾼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김동진, 『18·19세기 제주도의 신분구조와 연구』 단국대박사학위논문, 1995 ; 백승중 「19세기 초 제주도 대정현 덕수리의 유동적인 가족구조-유교적 관념과 동떨어진 사회현실-」 고문서연구회발표문, 1999.4.11.

연 도			1806	1819	1828	1837	1849	1858	1867	1879	1888	1898	1907
혈 연 관 계	주호부부와 직계존비속	口數	47	48	62	38	42	49	37	37	32	148	190
		%	71.2	63.1	72.1	55.9	56.8	64.5	47.4	49.3	43.8	90.2	97.9
	차입을 둔 직계존비속	口數	10	14	3		1		5	2			
		%	15.2	18.4	3.5		1.4		6.4	2.7			
	방계	口數	8	12	21	30	31	27	35	34	41	16	4
		%	12.1	15.8	24.4	44.1	41.9	35.5	44.9	45.3	56.2	9.8	2.1
차입을 둔 방계가족	口數	1	2					1	2				
	%	1.5	2.6					1.3	2.7				
합계			66	76	86	68	74	76	78	75	73	164	194

즉, 주호부부를 중심으로 한 직계존비속의 비율이 1828년을 정점으로 차츰 감소하고, 대신 방계가족이 증가추세를 보인다. 이는 같은 마을에 친족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이동이 잦은 경우에서 보듯이, 생존을 위해서는 경제력이 허락하는 한 가난한 방계의 가족까지도 가족의 구성원으로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호구조사세칙」이 제정되는 1896년 이후는 주로 미혼자녀와 주호부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덕수리의 경우에서 보듯이 전통적으로 제주도의 가족은 부부와 미성년을 중심으로 한 핵가족 중심체제였음을 알 수 있다.

< 표-2. 덕수리 『호적중초』상의 호구수와 호수의 표기> (단위: 호, 구)

연도	1804	1806	1809	1812	1816	1819	1825	1828	1831	1834	1837	1840	1843	1846	
덕 수 리	호 수 표기	元戶		元戶	元戶	元戶	元戶	元戶	原戶			原戶	原戶	元戶	
	호수	68	71	73	75	78	81	87	87	70	69	69	71	70	
	구수	288	302	374	394	427	429	482	519	436	461		376	382	394
	호 당 구수	4.24	4.25	5.12	5.25	5.47	5.30	5.54	5.97	6.23	6.68		5.54	5.38	5.63

연도	1849	1852	1855	1858	1861	1864	1867	1870	1873	1876	1879	1882	1885	1888	
덕 수 리	호 수 표기	原戶	原戶	元戶	原戶	原戶	原戶	原戶		原戶	原戶	原戶	原戶	原戶	
	호수	78	76	75	77	78	80	82	81	81	81	78	77	74	74
	구수	468	454	469	491	514	560	587	585	586	556	541	550	532	513
	호 당 구수	6.00	5.97	6.25	6.38	6.59	7.00	7.16	7.22	7.23	6.86	6.94	7.14	7.19	6.93

년도	1891	1894	1897	1898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덕수리	호수	原戶	原戶		烟戶										
	표기														
	호수	75	76	170	164	149	156	154	151	136	168	155	167	196	197
	구수	513	523	526	552	550	550	550	537	543	548	548	549	557	565
	호당구수	6.84	6.88	3.09	3.37	3.69	3.53	3.53	3.57	3.56	3.99	3.54	3.29	2.84	2.87

1808년-1825년에 호수와 구수의 증가는 대정현 지역이 화전 경작지로 대두하면서 삼읍의 인구가 점차 대정현 지역으로 유입되는 현상으로 19세기이래 무항산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山僻土沃' 한 대정현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상황과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을 것 같다¹⁹⁾. 특히 덕수리 지역의 화전 경작지대였기 때문에 대정현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은 한정된 지역에 인구가 많음에 따른 화전 경작이 더욱 조장되기에 이르렀고, 관아에서의 화전세 남징은 나아가 대정현 지역에서의 민란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²⁰⁾

자단리는 1831년에 신당리로 개칭하였다가 1840년에 덕수리로 개명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마을에 비해 호수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마을의 분리과정을 일정하게 반영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896년 이후의 호적은 기존과 달리 10家を 단위로 작통되었고, 「호구조사세칙」이 반포되면서 부모·형제라도 분거하면 원칙적으로 분호해야하는 원칙을 따랐기 때문에 구수의 변화없이 호수만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작통은 가좌순에 따르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1통 1호를 차지하기 위한 주민간의 다툼으로 “烟家順에 따라 統戶를 排定했다.”²¹⁾

1896년을 이후로 가정을 이룬 자녀들은 부모의 가호에서 분리되어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이혼 또는 재혼을 하게되면, 전처의 가족까지 한 집에 거주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1907년의 경우는 신호적법의 재강화와 1906년 9월부터 시작되어 1907년 5월에 완료된 경무고문부의 임시호구조사를 위한 실지조사로 인해 호구과악이 더욱 강화된 것 같다.

19) 「矣縣之光淸里 山僻土沃 三邑無恒産之類 犯禁燎原 就食於此境矣」李建弼, 『濟州牧按覈狀啓曆錄』, 『壬戌錄』, 1958. p.154.

20) 권인혁, 「철종조 제주민란의 검토-제주목안핵장계등록을 중심으로-」 『변태섭박사 화갑기념사학논총』 삼영사, 1985. ; 「19세기 전반 제주지방의 사회경제구조와 그 변동」 『이원순교수화갑기념사학논총』 교학사, 1986.

21) 김동전, 『18·19세기 제주도의 신분구조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95. p.37.

[표-2]에서 보는 것처럼 호당 평균 인구수는 1897년 이전의 경우, 전체 평균 6.67인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신호적법의 성립이후는 호적 작성에 따른 차이로 인한 호당 평균인구수는 현격히 줄고 있다.²²⁾ 이는 덕수리 지역뿐만 아니라 제주지방의 경우 호구 파악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으면 戶의 파악 방법이 육지지역과는 다른 특이성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 남녀 인구의 비율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많을 때는 무려 130여 명이나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자가 많은 제주의 역사적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²³⁾

<표-3. 제주도와 단성의 호구수 추이(일부) > (단위: 호, 구)

구분 연 도	제주도									경상도 단성현			
	사계리			대정현 하원리			덕수리			구 연 분 도	호수	구수	호당 구수
	호수	구수	호 당 구수	호수	구수	호 당 구수	호수	구수	호 당 구수				
1813	77	405	5.26	50	273	5.46	75	394	5.25	1786	3006	13825	4.6
1861	78	829	10.63	50	468	9.36	78	514	6.59	1820년대	2517	9951	3.95
1906	215	832	3.87	121	514	4.3	167	549	3.29	1860년대	2891	11699	4.05

제주도와 단성현의 호구수 추이를 비교해보면 1813-1861년까지 호수는 거의 변동이 없거나 다소간의 증가함에 비해 구수는 2배정도 증가하였고, 호당 구수도 이에 비례하고 있다. 1861-1906.7년까지 구수는 큰 변동이 없는데 반해 호수는 2-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호당구수 또한 현격히 줄어들었다. 1906-7년의 호구수는 갑오개혁 이후 1896년 「호구조사세칙」에 의해 조사된 것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세기 제주도의 호당구수는 식년간에서만 아니라 이웃하는 단성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게 나타나며, 심지어 배를 초과한다. 그렇다면 제주도 호적중초에서 보이는 호수와 구수의 급격한 증가와 상호간의 괴리, 지역간 호당구수의 차이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는 단순한 지역적인 차이 또는 호적제도상의 문란이라고 할 수 없으며, 어떤 일정한 원칙에 의해 편제되고, 또 조정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2) 호당 평균 인구수는 18세기 초 4.56명으로 김석희가 산출한 전국 평균 4.24명¹⁾에 비해 호당평균인구수는 18세기 후반보다 높은 1827년이 6.10명에서 1873년에는 7.23명으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김석희, 「18·19세기 호구의 실태와 신분변동-新例 연양현 호적대장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26집, 부산대, 1984. p.354.; 김동진 앞의 논문 p.46)

23) 「제주대정현덕수리호적중초해제」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93

2. 덕수리의 사회경제적 환경

德修里는 제주도 남제주군의 모슬포에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곳으로 일주도로 바로 북쪽에 자리잡은 농촌으로 중산간 마을에 해당한다. 1991년 현재 이 마을에는 285호에 인구 1,1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19세기 초반만해도 현재 인구수의 3할에 해당하는 350명 정도가 이 마을에 분산 거주하고 있었다.

1416년부터 1913년까지 대정현의 현청소재지였던 대정고을(仁城·安城·保城)과는 2.3km쯤의 거리이며, 동쪽으로 약 40km를 가면 서귀포시의 중심가에 이른다. 1652년경에 속칭 '곶바구리' 라는 곳에 김해 김씨의 선조가 들어온 후 문·이·양씨의 조상들이 들어와서 나라에 바칠 소들을 치며 살았고 200여년전 상동(지금의 도련동)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현재는 송씨, 김씨, 윤씨들의 大姓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마을 안에 송씨의 세력은 꽤 뻗어 있다. 礪山宋氏 元尹公派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全羅南道 高興에서 진도를 거쳐 제주도로 입도한 이후 덕수리에 입주한 지는 11대에 이르고 있다.²⁴⁾ 조선조 순조때에는 宋益河, 宋益寶, 宋慶寶(宋守元의 子) 등이 武科로 등용되었다고 한다. 과거에는 화전지대에서 밭농사와 목축이 이 마을의 주된 산업이었다. 원래 이 마을은 사계리, 동·서광리와 상천리, 광평리와 함께 1608년 경부터 自丹里에 속해 있다가 하동을 분리하여 1831년경에 새당으로 부르게 되었다. 이후 송문규에 의해 더욱 부촌이 되는 것을 바라는 뜻에서 덕수리로 마을이름을 바꿨다.²⁵⁾

대정현은 제주목·정의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반세력이나 향교의 영향력이 약한 편이었다. 또한 대정현은 도내 죄인들의 유배지로 주로 이용되었고, 重罪를 지었을 경우에는 대정현 소속의 가파도, 마라도로 유배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대정현 출신의 科宦者 또한 제주목·정의현과 비교해 볼 때 미미할 수 밖에 없었다. 『國朝文科榜目』에서 확인되는 대정현 출신으로 등과한 자는 李九成²⁶⁾·金 壩²⁷⁾·邊景鵬²⁸⁾ 등 3명에

24) 礪山宋氏 元尹公派의 제주도 종친회가 덕수리에 있을 정도로 대성을 이루고 있다.

25) 濟州大學校 國語國文·國語教育科 「安德面 德修里 調査報告書」 『學術調査報告書』 7, 1982.

26) 李九成: 1702년(숙종 28)에 태어나 1739년(영조 15)에 庭試에 응시하여 內科로 등과. 字는 子韶, 본관은 古阜, 1521년 대정현에 유배되었던 이세번의 8세손

27) 金 壩: 1783(정조 7) 增廣文科別試 殿試榜으로 등과

28) 邊景鵬: 1795년(정조 19) 式年 文科 殿試榜으로 합격. 본관은 原州, 字는 萬里, 父의 이름은 聖休

불과하다. 이는 전체적인 제주도 거주자 중 통과한 자 60여명의 5%에 지나지 않는 수치이다.²⁹⁾

제주도는 예전부터 내륙과의 교역이 불편했기 때문에 생활 필수품을 거의 자급자족해야만했다. 특히 덕수리를 말함에 있어 불무(주물업)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 주물업이 이 마을에 부업으로 등장한 것은 약 250년 전인 18세기 중반으로, 당시 宋世萬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 풀무질이 덕수리에서 성행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솔이나 벼파위를 만들 때 필요한 '덩이', '바습'이란 틀의 재료가 되는 진흙이 이 마을에서 생산되는 데 있는 것 같다. 풀무질로써 솔과 벼, 보습, 팽이, 쇠스랑 및 망치, 후레이팬, 삼발이를 만들었는데, 이 제품들은 제주도 고을로 팔려 나갔는데 가끔 배를 이용하여 실려 나가기도 했었다고 한다.³⁰⁾ 19세기 말에는 덕수리의 주민들이 제주 도내에 주물업을 독점하다시피 하였으며, 큰 부자가 된 이들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생산된 제품은 우마 혹은 인력으로 운반되었고, 해안지방에서는 풍선을 이용하였으며 주로 물물교환이 성행했다 한다.

덕수리의 통혼형태를 살펴보면, 주로 마을내에서의 通婚이 50~60%를 차지하며, 인근마을인 화순, 사계, 서광, 모슬포 등지와 주로 통혼을 하곤 했다. 반면 호적상에는 양반지역의 많이 표기됨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마을인 대정고을(仁城·安城·保城)과의 통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은 주목할 만하다. 주요 이유로는 대정고을측의 양반 텃세와 덕수리에서 전래되는 풀무질에 관련된 俗信의 영향으로 보여진다.³¹⁾ 즉, 덕수리의 각 가정에서는 50여 년 정도까지 만해도 대장간이 수호신처럼 여기는 뒷하루방³²⁾이라 불리워지는 신을 집 안채의 뒤에 모셨기 때문이다.³³⁾

29) 김동전, 『18·19世紀 濟州島의 身分構造 研究-大靜縣「戶籍申草」를 중심으로-』, 단국대박사학위논문, 1995

30) 제품의 판로 및 판로방법: 다른 지방에서 소나 우마를 이용하여 제품을 사가기도 하고, 이 마을에서 직접 팔려 나가기도 하며, 배를 이용하여 제주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까지 제품을 파는 도매상도 있었지만 대개 제품의 판로는 제주지방에 국한되었다 (濟州大學校 國語國文·國語教育科 「安德面 德修里 調査報告書」 『學術調査報告書』 7, 1982)

31) 濟州大學校 國語國文·國語教育科 「安德面 德修里 調査報告書」 『學術調査報告書』 7, 1982. pp.15~20 참조.

32) 뒷하루방이라는 뜻을 풀이해 보면 “뒤에 있는 할아버지”라는 뜻으로, 영감신(令監神)으로, 안채 뒤 장독대 근처 돌담구석에 시루라고 불리는 단지를 얹어놓고 그 위에 평평한 돌을 놓아 그것을 ‘뒷하루방’이라고 부른 것이다.

33) 津波高志, 「濟州의 通婚圈에 關する 再檢討-安德面德修里의 事例을 中心に-」 『탐라문화』 20, 1999.

Ⅲ. 호적중초와 족보의 내용

1. 입향과 정착

덕수리의 호적중초와 여산송씨 대동보를 보면, 송세만 일가가 주물업 운영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룬 후를 기점으로, 덕수리에 여산송씨 원유공파가 자리잡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여산송씨 원유공파 19세손인 후손이 없었던 礪³⁴⁾의 시기 이후로 송세만 일가는 연결이 되며, 20세손 德九³⁵⁾, 21세손 嘉錦³⁶⁾대에 오면 진도를 거쳐 제주도(북제주군 한경면 청수리)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22세손인 日相³⁷⁾, 日奉대에 오면 비로소 덕수리에 자리잡게 된다. 대략 처음으로 제주도에 입향을 한 시점이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로 보이며, 덕수리에 정착을 한 시점은 18세기 중반으로 추정이 된다. 이들이 어떤 연유로 제주도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는 확실치는 않다.

송세만 일가가 礪의 이후 시기로 연결되는 과정은 다음에서 알 수 있다. 여산송씨 1797년, 1891년 어느 족보에서도 礪이후 대는 찾아볼 수 없으며, 근래에 간행되는 족보에서는 송세만 일가를 찾을 수 있다.

족보의 체제 또한 礪의 시기 이후는 완전치가 못하여 그들 개개인의 생몰년 추정 뿐만 아니라, 선후 세대간 생몰년 추정도 어렵다.³⁸⁾ 그리고 부녀자의 기록은 淑夫人, 貞夫人을 칭하고 있지만 그들의 父에 대한 기록마저 거의 없고, 생몰년을 제대로 밝히

34) 顯宗 丙午生 甲戌 九月 八日卒 墓 珍島 義新面 草上里 西上嶺亥坐

配 光山金氏 丁未生 忌 八月十六日 墓附一男

35) 壬戌生癸亥 二月十三日卒 墓上同 配完山李氏 甲子生忌十月七日 墓附 一男

36) 官通德郎 甲申生十一月二十四日卒 墓 北濟州郡 翰京面 清水里 鳥巢南子坐

配 恭人 咸原崔氏癸未生 忌 戊戌十二月十九日 墓同岡子坐 二男

37) 官 嘉善 六月九日卒 墓 南濟州郡 安徳面 徳修里 池徳田良坐 配 貞夫人金海金氏

忌 八月十九日 墓 射場南子坐 二男

38) 족보의 기록 내용은 족보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록한다. 우선 권두에 족보 일반의 의의와 그 일족의 근원과 내력 등을 기록한 序文이 있다. 이 글은 대개 一族 가운데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기록하는 것이 상례이다. 다음에는 시조나 중시조의 史傳을 기록한 문장이 들어가며, 다음에는 시조의 墳墓圖와 시조 발상지에 해당하는 향리지도 등을 나타낸 도표가 들어가며, 그 밑에 범례가 있다. 끝으로 족보의 중심이 되는 계보표가 기재된다. 이것은 우선 시조에서 시작하여 세대순으로 縱系를 이루며, 같은 향렬은 횡으로 배열하여 동일 세대임을 표시한다. 기재된 사람은 한 사람마다 그 이름·호(號)·시호(諡號)·생몰연월일·관직·봉호(封號)·훈업(勳業)·덕행(德行)·충효(忠孝)·문장·저술(著述) 등을 기록한다. 또, 자녀에 대해서는 입양관계, 적서의 구별 및 남녀의 구별 등을 명백하게 한다.

지 않고 있다.

이들이 덕수리에서 주물업을 운영하고, 대부분이 화전지대였던 대정현 일대를 중심으로 농기구를 판매함으로써 그들의 부를 축적, 정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신분·직역의 변화

조선후기에 들어서면 사회·경제적의 세변화에 따라 納贖·軍功·續良등의 합법적인 방법이나 冒稱冒錄·換父易祖등의 비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평민·노비층이 신분상승이 이루어졌다. 납속 품관을 받을 수 있는 신분적 범위는 위로는 사족에서부터 아래로는 公私賤隸에 이르기까지 50세 이상으로서 다소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 누구든지 납속수첩이 가능하였다. 조선시대 납속인들이 받을 수 있었던 품직으로는 老職·追贈職·加設職등의 虛職과 實職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受帖하였다고 하여도 사대부와 동일한 대우를 받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職帖 자체만으로 양반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건은 무리다 납속이라는 단서를 붙이게 되면 상한품관자는 응역의 대상이 되었다.³⁹⁾

예로부터 제주도의 경우는 여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져야 할 균역의 폐해는 상당했다. 즉, 제주 지역 남자의 경우는 1인 10역을 담당할 정도로 역의 부과가 과중하였을 뿐만 아니라, 15세 이하의 남자에게까지 역을 부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男丁에 대한 역의 과중은 궁극적으로 도망을 통한 피역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고, 이에 豆毛岳이라 칭하는 특수계층의 발생을 가져왔다. 그 수는 한 때 제주도민의 거의 반에 이르는 대규모이기도 하였다. 1629년(인조 7)에서부터 1823년(순조23)까지 근 200여 년간 제주도민의 출륙을 금지하는 조치를 마련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⁴⁰⁾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役을 부과하기 위한 기본대장이기 때문에 역을 피하기 위해 납속에 의한 방법, 籍吏와의 결탁에 의한 위조나 모칭·모록이 끊임없이 이루어졌음은 분명하며 송세만 일가 또한 그러한 경우로 여겨진다.

39) 『비변사등록』 8책, 영조 5년 5월 7일조, “納粟加資之類 戶籍中 不書納粟二字 只稱通政·折衝 以此之故 朝士·大夫·常漢 莫能卞之 實爲可駭 且不書納粟 只書通政而不爲應役 故以一洞言之 數百戶之中 出役者不過十餘戶”

40) 두모악은 豆秃也只·頭無岳·豆毛岳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원래는 한라산을 頭無岳·豆毛岳 이라고 칭한대서 말미암은 제주도인에 대한 속칭이며, 18세기 중엽부터 18세기 초엽에 이르기까지는 이른바 出陸濟州島民, 즉 원주지인 제주도를 불법적으로 이탈하여 주로 전라·경상도 연해 지역에 거주하던 제주도민을 지칭하는 공식명칭이다. (한영국, 「豆毛岳考」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 1981)

호적중초와 족보를 비교한 다음의 표를 통해 모칭·모복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필 수가 있겠다.

<표-4. 호적중초와 족보의 생졸년·직역 비교>

자료 구 성 원	비고	호직중초				족보			
		본인		처		본인		처	
		생졸년	직역	생졸년	비고	생졸년	직역	생졸년	비고
송 무						顯宗 丙午-甲戌 1666-1694/1754		光山 金氏 丁未-? 1667-?	
덕구						壬戌-癸亥 1682-1743		完山 李氏 甲子-? 1684-?	
가금						甲申-? 1704-?	通德郎	忝人 咸原 崔氏 癸未-戊戌 1703-1778	
일상	가금子		老職 嘉善				嘉善	貞夫人 金海 金氏	
선백	일상子		老職 嘉善				嘉善	密陽 朴氏	
세한	선백子		兼司僕					順興 安氏	
필규	세한子	辛未-己巳 1751- 1809-1812	前把總	金海 金召史 父: 兼司僕 辛未- 1751- 妾: 車召史 父: 通政 壬午- 1762-	중형 계장			金海 金氏	
원채	필규子	갑오-임자 1774-1852	前將官	大邱 徐召史 甲辰- 1784-	父: 秉節 校尉 龍驤衛 副司果 진웅	憲宗己亥-辛亥 1839-1851/1911		大邱 徐氏 甲辰-癸丑 1844-1913	
영국	원채子	丙寅-경오 1806-1870	作史 城將	李召史 丁卯- 1807-	父: 武科 初試 현록	哲宗丙寅-辛未 1866-1931		古阜 李氏 戊辰-癸酉 1868-1933	父: 현록

자료 구 성원	비고	호적 중초				족 보			
		본 인		치		본 인		치	
		생졸년	비 고	생졸년	비 고	생졸년	직역	생졸년	비고
동연	일상子		通政				嘉善	貞夫人 金海 金氏	
석	동연子		業武 通政	濟州 高召史 庚戌- 1730-1815			通政	淑夫人 金海 金氏 濟州 高氏	
수빈	석子	辛丑-을유 1781-1825 1828	業武	金海 金召史 辛丑- 1781-	父: 業武 무성	辛丑-戊戌 1781-1838	嘉善	貞夫人 金海 金氏 戊申-? 1788-? 貞夫人 金海 金氏 戊申-丙申 1788-1836	
광신	수빈子	戊辰- 1808-	嘉善 大夫 同知 中樞 府事	貞夫人 金海 金氏 戊辰- 1808-	父: 學生 만두	甲戌-己巳 1814-1869	嘉善	貞夫人 金海 金氏 己巳-壬申 1809-1872 貞夫人 東來 鄭氏 庚辰-甲子 1820-1864	父: 만두
의현	광신子	甲申- 1824-	病身 復戶 校生	吳氏 壬寅- 1842- 陽川 許召史 戊子- 1828-	父: 學生 광국 父: 將官 순	辛卯-庚寅 1831-1890		陽川 許氏 己丑-庚子 1829-1900	
인화	의현子	戊午-庚寅 1858-1890	復戶 品官	古阜 李氏 己未- 1859-	父: 品官 성검	戊午-庚寅 1858-1890	武科	古阜 李氏 甲寅-庚寅 1854-1890	父: 성검

자료 구 성 원	비고	호적중초				족 보			
		본 인		처		본 인		처	
		생졸년	직 역	생졸년	비고	생졸년	직역	생졸년	비고
인명	의현子	庚申- 1860	儒品官	濟州高氏 乙丑- 1865-	父: 品官 한호	庚申-己未 1860-1919		密陽朴氏 丁巳-丙子 1857-1876 濟州高氏 丁巳-壬辰 1857-1892 晉州姜氏 甲子-庚申 1864-1820	
의준	광신子	丁亥- 1827-	掌議	水原 白氏 甲午- 1834- 晉州 姜氏 甲辰- 1844-	父: 閑良 종학 父: 別監 종빈	憲宗己亥-己酉 1839-1909		水原 白氏 乙未-庚戌 1835-1910 晉州 姜氏 甲辰-? 1844-	父: 종학 父: 종빈
인형	의준子	신미- 1871-	掌議	晉州姜氏 1869-	父: 留鄉 座首 제교	高宗辛未-己未 1871-1919		晉州 姜氏 己巳-癸巳 1869-1893	父: 제교
인원	"	갑술- 1874		김해김씨 己卯 1879-		高宗甲戌-戊辰 1874-1928		光山 金氏 己卯-癸卯 1879-1915 晉州 姜仙 玉 辛巳-壬子 1881-1912	父: 광득 父: 필호
의중	광신子	丁巳- 1857-	閑良 品官	密陽 朴召史 辛亥- 1851-	父: 把摠 종록	壬子-丙戌 1852-1886		密陽 朴氏 戊午-丙戌 1858-1886	
일봉	가금子		通政			甲寅-壬寅 1734-1782	嘉善	貞夫人 慶州 金氏 辛丑-癸巳 1721-1773	

자료 구성원	비고	호적중초				족보			
		본인		처		본인		처	
		생졸년	직역	생졸년	비고	생졸년	직역	생졸년	비고
세만	일봉자		嘉善			戊寅-辛亥 1758-1791	嘉善	貞夫人 密陽 朴氏 繼配 順興安氏	
재택	세만자		展力副尉 兼司僕			己亥=癸酉 1779-1813	通政	淑夫人 昌原 車氏 甲午-庚申 1774-1800	
필태	재택자		前將官	平澤林召史 戊辰-? 1748-?	父: 嘉善 중앙	甲子-己丑 1804-1889	通政	淑夫人 平澤 林氏 戊辰-? 1748-?	
수림	필태자	丁亥-乙亥 1767-1815	前城將	古阜李召史 丁亥-? 1767-?	父: 秉節 校尉龍驤 衛副司果 완수	丁亥-乙亥 1827-1875	通政 工曹 參議	淑夫人 慶州 李氏 戊子-壬寅 1768-1842	父: 완수
익훈	수림자		出身			戊申-甲申 1848-1884	武科 五衛將	淑夫人 濟州 高氏 乙巳-甲辰 1785-	父: 흥미
문규	익훈자	甲子-己卯 1804-1879	閑良 業武及第 復戶校生	金海 金氏 癸亥- 1803-	父: 出身 광용	甲子-己卯 1864-1939		金海 金氏 辛酉-甲辰 1801-1844	父: 광용
시륜	문규자	辛巳-辛卯 1821-1891	儒品官	金海 金氏 丁亥- 1827-	父: 靑衿 광운	辛巳-庚寅 1881-1950		金海 金氏 丁亥-丙戌	父: 광연
시목	문규자	甲申 1824-	儒品官	李氏 己丑- 1829-	父: 閑良 계룡	癸巳-乙卯 1833-1855		遼山 李氏 辛卯- 1831-	
문표	익훈자	辛未-무자 1811-1888	出身 嘉善 大夫同知 中樞府事 兼五衛將	貞夫人 金海 金氏 丁卯- 1807-	父: 武科 及第 덕룡	辛未-丁丑 1861-1946	嘉善	貞夫人 金海 金氏 丁卯-癸未 1807-1883	父: 덕준

자료 구성원	비고	호적중초				족보			
		본인		처		본인		처	
		생졸년	직역	생졸년	비고	생졸년	직역	생졸년	비고
시찰	문표子	甲午- 1834-	校生	晋州 姜氏 庚寅- 1830-	父: 幼學 복홍	庚辰-丙戌 1820-1886	通政	淑夫人 晋州 姜氏 丙戌-戊申 1826-1908	父: 복홍
은후	시찰子	甲寅- 1854-	復戶 校生	遼山 李氏 甲寅- 1854-	父: 校生 항령	甲寅-丁未 1854-1907		遼山 李氏 癸丑-戊辰 1853-1928	
은서	"	辛未- 1871-	復戶 閑良	李氏 丁卯- 1867-		丁卯-壬午 1867-1942		遼山 李氏 戊辰-己丑 1868-1949	父: 노새
익보	수림子	丙辰-? 1796-?	出身	金海 金氏 辛亥- 1791-	父: 把摠 성태	己卯-丁酉 1819-1837	武科		
문옥	익보子	癸酉- 1813-	閑良 校生	金海 金氏 己卯- 1819-	父: 學生 인대	戊寅-戊子 1818-1888		金海 金氏 丙戌-? 1826-	父: 인대
시진	문옥子	癸丑- 1853-	假率			己丑-己巳 1829-1869		平澤 林氏 丁亥-己巳 1827-1869	
수원	필완子	辛卯-乙卯~ 戊午 1770- 1855~1858	城將	豊川 任氏 己丑 1769-	父: 城將 덕운	辛卯-丙辰 1770-1856	嘉善	淑夫人 豊川 任氏 己丑-丁酉 1769-1837	父: 덕운
경보	수원子	庚戌-庚申 1791-1860	出身 武科 及第	古阜 李氏 己酉- 1789- 仁同 張召史 甲寅- 1794-	父: 閑良 익룡 父: 徳郎郎 봉현	庚戌-庚申 1791-1860	武科	古阜 李氏 戊申-丁酉 1788-1837 仁同 張氏 丁酉-? 1837-	父: 익룡

자료 구성원	비고	호적중초				족보			
		본인		처		본인		처	
		생졸년	직역	생졸년	비고	생졸년	직역	생졸년	비고
경보	수원자	庚戌-庚申 1791-1860	出身 武科 及第	濟州 高召史 癸亥- 1803-	父: 書員 한제	庚戌-庚申 1791-1860	武科	濟州 高氏 ?-丙戌 -1886	父: 한제
계홍	경보자	己巳-己巳 1809-1869	業武 復戶 校生	晉州 姜氏 庚午 1810-	父: 品官 신언	生父: 경신 己巳-己巳 1809-1869		海州 吳氏 己巳-丁酉 1809-1837 1897 晉州 姜氏 庚申-辛丑 1800-1841	父: 언경 父: 신언

족보상으로 보면 斌는 현종 연간(1666-1754)에 살았으며, 별다른 관직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보통 한 대를 30년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가금은 1700년대에 출생을 했으며 직역으로 통덕랑이 표기되고 있고, 일상은 1730년대에 출생을 하였고, 嘉善大夫가 표기되고 있다. 또 그와 같은 항렬인 일봉의 생몰년은 갑인-임인(1734-1782)이며, 嘉善大夫로 표기되고 있다. 선백 또한 嘉善大夫로 표기되고 있으며, 1760년대에 출생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와 같은 항렬인 세만의 생몰년은 무인-신해(1758-1791)이며 가선대부를 칭하고 있다. 필규는 1780년대에 출생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항렬인 재택의 생몰년은 기해-계유(1779-1813)이며, 통정대부로 표기되고 있다. 필규의 아들 원채의 기록을 보면 현종연간(1839-1851/1911), 또 원채의 아들 영국은 철종연간(1866-1931)에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필규와 같은 항렬인 필태의 생몰년은 갑자-기축(1804-1889)이며, 通政大夫로 표기되고 있고, 그의 아들 수립의 생몰년은 정해-을해(1827-1875)이며, 通政工曹參議로 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족보상에 생몰년이 정확히 표기되고 있지 않으며, 이들이 통정, 가선대부를 칭하고는 있지만, 전혀 처의 父에 대한 기록이 없는 가운데, 貞夫人·淑夫人을 칭하고 있다.

호족중초의 기록을 보면, 필규는 신사년(1751)에 출생하여 임오년(1812)부터는 사망하여 그의 아들 원채에게 호주를 승계한다. 원채는 갑오년(1774)년에 출생하여 을묘년(1855)부터는 사망으로 인해 그의 아들 영국(1806-1870)에게 호주를 넘겨준다. 필태의 아들 수립의 경우를 보면 직역이 前城將으로 표기되고 있고, 정해년(1767)에 출생하여 을해년(1815)호적부터는 그의 손자 문규에게 호주를 넘겨준다. 문규는 직역이 閑良武科及第로 표기되며 갑자년(1804)에 출생하여 임오년(1882) 호적부터는 그의 아들 시륜에게 호주를 넘겨준다. 시륜은 직역이 유품관으로 표기되고 있으며, 신사년(1821)에 출생하여 갑오년(1894)호적부터는 그의 아들에게 호주를 넘겨준다.

대개 호적중초상의 기록을 바탕으로 후대에 족보 또한 간행되었으며, 족보체제 또한 완전치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조선후기에 어떻게 족보를 위조했으며, 송세만 일가가 족보를 위조해야만 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위조족보가 처음 조선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18세기 후반의 기록을 보면,

임금이 주강을 행하였다. 헌부에서…또 아뢰었다. “역관 김경희라는 이가 사사로이 활자를 주조한 다음 다른 사람들의 보첩을 많이 모아놓고 시골에서 군정을 면하려는 무리들을 꼬여다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책장을 바꾸어 주는 것으로 생계를 삼고 있습니다. 법조로 하여금 엄히 조사하여 무겁게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⁴¹⁾

족보를 위조한 김경희의 신분은 중인이며, 김경희가 여러 족보들을 위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쇄시설을 소유했기 때문이며, 김경희의 족보위조는 양반들과의 뒷거래를 기반으로 성립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원래 족보는 해당가문에서 한정된 부수만 간행하였으며, 족보의 간행과 배포는 그 가문의 중심인물들이 그 책임을 전적으로 도맡았었다. 그렇다면 김경희는 어떻게 하여 다수의 양반족보를 입수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아마도 몰락한 양반들로부터 그들의 족보를 몰래 사들이는 방법과, 족보간행의 책임자의 그 가문의 대표들에게 뇌물을 주고 여별로 족보를 더 짙게 한 다음 비밀리에 건네 받았을 것이다.⁴²⁾

조선시대에 족보는 사문서인 동시에 공문서로서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렇게 때문에 군역의 의무를 져야했던 평민들은 족보를 증빙서류로 삼아서 군역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족보를 위조할 경제적 형편이 되는 한 평민들은 이를 통해 실

41) 『영조실록』 권 44, 영조 40년 음 10월 19일 정유.

42) 백승중, 「위조족보의 유행」 『한국사시민강좌』 24집, 일조각, 1999. pp.74-76.

질적인 혜택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주물업을 통해 부를 획득한 송세만 일가는 그들 자신과 그 전후 세대를 중심으로 호적중초상에는 모칭·모록을, 또한 족보를 위조함으로써 보다 확실하게 그들의 위상을 현양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호적중초의 기록을 통해 송세만 일가의 직역 변화과정을 살핀 것이다.

<표-5. 송세만 일가의 신분·직역 변화상>

연 이 도 름	비 고	1789	1804	1809	1816	1825	1831	1834	1840	1843	1846
일봉	가금 子	老職 通政									
세만	일봉 子	嘉善	嘉善	嘉善							
재택	세만 子	展力 副 尉 兼 司僕	좌동	좌동	좌동						
필태	재택 子		前將官	前將官	將官	城將	城將	城將	城將	城將	城將
수림	필태 子		前城將	前城將	城將	城將	城將	城將	城將	城將	城將
익훈	수림 子							出身	武科 及第	좌동	出身
문규	익훈 子							閑良	閑良	閑良	閑良
시영	문규 子							品官	品官	品官	武科 及第
시용	"							品官	品官	品官	品官
시호	"							品官	品官	品官	品官
시걸	"										
문표	익훈 子									出身	出身
시련	문표 子									閑良	閑良
문술	"									閑良	閑良
문혁	"									閑良	閑良
익보	수림 子				出身	出身	出身	出身	出身	出身	出身
문효	익보 子					閑良	閑良	閑良	閑良	閑良	祠生
문재	"						閑良	閑良	閑良		
문충	"						閑良	閑良			
문신	"							閑良	閑良	閑良	閑良
문화	"										
익채	수림 子		業武	業武	業武	業武	城將	城將		城將	城將
문도	익채 子					假率					
문창	"						假率	假率	假率	假率	
문지	"								假率	假率	

연 이 름	비 고	1789	1804	1809	1816	1825	1831	1834	1840	1843	1846
익진	수림 子			小童	作小童	作吏	記官	記官	戶長	前戶長	假率
문간	익진 子							假率	假率	假率	祠生
문학	"								假率	假率	假率
문주	"										假率
익생	수림 子				作小童	作吏	記官	假率	城將	城將	祠生
문급	익생 子								假率	假率	祠生
문시	"										祠生
익효	수림 子										
문집	익생 子										
문권	"										
문기	"										
문형	"										
필완	재택 子	出身	前出身	前出身	出身	出身	出身	訓練院 奉事御 營哨官	좌동	좌동	좌동
수련	필완 子		前城將	前城將	城將	城將	城將	城將	城將	城將	城將
익언	수련 子		業武	業武							
익중	"				業武	業武	將官	千摠	千摠	千摠	千摠
명진	익중 子										
명휘	"										
명철	"										
익홍	수련 子					業武	假率	城將	城將	城將	城將
명홍	"							品官	品官	品官	品官
명윤	"									品官	品官
명관	"										
수원			城將	閑良	城將	城將	嘉善大夫 同知中樞 府事	좌동	좌동	좌동	좌동
경보	수원 子		業武	前將官	出身	出身	出身	出身	出身	出身	出身
계현	경보 子									閑良	閑良
계홍	"				業武	閑良	閑良	閑良	復戶 校生	좌동	
시백	계홍 子									品官	品官
시중	"										
경신	수원 子		業武	業武	將官	將官	將官	千摠	前將官	將官	將官
계윤	경신 子					業武	品官	品官	品官	品官	品官
시주	계윤 子									品官	品官
계은	경신 子						假率	品官	品官	品官	品官
계영	"									品官	品官
계정	"								品官	品官	品官

연 이 름	비 고	1852	1855	1861	1864	1870	1873	1876	1879	1882	1888	1894
일봉	가금子											
세만	일봉子											
재택	세만子	展力副兼僕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필태	재택子	城將	城將	贈通訓大夫軍資監正	좌동							
수림	필태子	城將	城將	贈通政大夫工曹參議	좌동							
익훈	수림子	出身	出身	武科及第贈嘉善大夫漢城府左尹兼五衛都摠副總管	좌동							
문규	익훈子	閑良武科初試	좌동	좌동	좌동	復戶校生	좌동	좌동	좌동	學生	學生	學生
시윤	문규子	品官	品官	儒品官叔父蔭復戶	좌동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校生	校生	學生
은식	시윤子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校生	學生	學生
상준	은식子										幼學	掌議
시용	문규子	品官										
시도	"	品官	品官	儒品官叔父蔭復戶	좌동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掌議	掌議
은형	시목子							儒品官	儒品官	校生	掌議	掌議
시걸	문규子	品官										
문표	익훈子	出身	出身	出身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	좌동							
시칠	문표子	院生	院生	閑良復戶校生	좌동	校生復戶	좌동	좌동	校生	掌議	學生	學生
은후	시칠子				閑良	校生	復戶校生	좌동	復戶校生	掌議	掌議	掌議
은싱	"					儒品官	儒品官	復戶閑良	좌동	幼學	掌議	掌議
은서	"						儒品官	復戶閑良	좌동	幼學	掌議	掌議

연 이 름	비 고	1852	1855	1861	1864	1870	1873	1876	1879	1882	1888	1894
문학	익훈 子	閑良				閑良	閑良	閑良	閑良	閑良	閑良	閑良
시화	문학 子			儒品官	品官叔父 蔭復戶	品官	儒品官	校生	校生	校生	掌議	掌議
익보	수림 子	城將	出身	武科 及第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문옥	익보 子	閑良	閑良 院生	院生	院生	院生	校生官	校生	校生	校生	學生	學生
시진	문옥 子					品官	學生	學生		學生	學生	學生
은길	시진 子					品官	儒品官	儒品官	校生	掌議	掌議	掌議
은유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掌議	掌議
문신	익보 子	閑良	閑良	祠生	祠生	祠生						
시검	문신 子	品官	品官	品官	品官	品官	品官	品官	把摠		品官	學生
은계	시검 子						假率	假率	假率	假率	掌議	掌議
문화	익보 子											
익채	수림 子	城將	城將		城將	城將	城將	城將	城將	城將	品官	品官
문도	익채 子											
문창	"	假率	城將	城將	城將	城將	城將	復戶 城將	좌동	復戶 城將	品官	品官
시련	문창 子			品官	品官	品官	品官	品官	品官	校生	掌議	掌議
은철	시련 子											掌議
문지	"	假率	假率		把摠	把摠	把摠	復戶 把摠	復戶 把摠	復戶 把摠	復戶 把摠	把摠
시조	문지 子			假率	假率	假率	假率	品官	品官	品官	掌議	掌議
홍조	"					品官	品官	品官	品官	品官	掌議	掌議
응조	"								品官	品官		
익진	수림 子	復戶 執事	千摠	千摠	千摠	千摠	千摠	千摠				
문홍	익진 子	平役軍	平役軍	儒品官	掌議	掌議	學生	學生				
시은	문홍 子		品官	儒品官	品官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은호	시은 子							儒品官				
문학	익진 子											
문주	"	假率				假率	假率	品官	品官	品官	品官	品官
인방	문주 子				品官	品官	品官	品官	品官	掌議	掌議	掌議
익생	수림 子											
문금	익생 子											
필완	재택 子	訓練院 奉事御 營哨官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연 이 도 름	비고	1852	1855	1861	1864	1870	1873	1876	1879	1882	1888	1894	
수련	필완 子	閑良	閑良	閑良	閑良	閑良	閑良	閑良	閑良	閑良	閑良	閑良	
익연	수련 子												
익중	"	千摠	千摠	學生	學生	學生	學生	學生	學生	學生	學生	學生	
명진	익중 子	院生	院生	院生	院生	品官	品官	校生	校生	掌議	學生	學生	
기규	명진 子							儒品官	儒品官	幼學	掌議	掌議	
명인	익중 子	品官	品官	儒品官	儒品官	校生	校生	校生	校生	掌議		學生	
기형	명인 子											幼學	
명량	익중 子	品官	品官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校生	校生	掌議		學生	
기형	명량 子									幼學	掌議	掌議	
익홍	수련 子	品官	品官	品官	品官	品官	品官	校生	校生	校生	學生	學生	
명홍	익홍 子	品官	免講 校生	校生	校生	校生	校生	校生	校生	校生	掌議	學生	學生
시홍	명홍 子	品官	品官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시일	"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掌議	掌議	留鄉 別監	
봉심	시일 子										幼學	掌議	
명윤	익홍 子	品官	品官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校生	掌議	掌議	留鄉 別監	
시용	명윤 子								儒品官	幼學	幼學	留鄉 別監	
명관	익홍 子	品官	品官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品官	掌議	掌議	掌議	
성만	명관 子										幼學	幼學	
성은	"												
명숙	익홍 子	品官	品官	儒品官	品官五 丁閑良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掌議	掌議	掌議
수원	필완 子	嘉善人 夫同知 中樞府 事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경보	수원 子		出身	出身	武科 及第	좌동							
계현	경보 子		閑良										
계홍	"	復戶校 生	좌동	좌동	좌동	校生	學生	學生	學生	學生	學生	學生	
시백	계홍 子	品官	品官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校生	校生	掌議	掌議	學生	
태식	시백 子								儒品官	幼學	幼學	留鄉 別監	
완심	"										幼學		
시중	계홍 子	品官	品官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掌議	掌議	

연 이 도 름	비고	1852	1855	1861	1864	1870	1873	1876	1879	1882	1888	1894	
태심	시중 子											留鄉 別監	
시우	"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掌議	掌議	
시운	"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掌議	掌議	
계용	경보 子			閑良	閑良	閑良	閑良品官	閑良	復戶 校生	復戶 校生		掌議	
남표	계용 子					品官	校生	校生	校生	掌議		掌議	
남규	"							品官	校生	掌議		掌議	
남규	"									儒品官		掌議	
경일	수원 子	將官	品官	品官	學生	學生							
계운	경신 子	品官	院生	院生	院生							學生	
시득	계운 子	品官	品官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掌議	
지권	시득 子				品官	品官	品官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掌議	掌議	
춘성	지권 子											掌議	
시량	계운 子	品官	品官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校生	掌議	掌議	留鄉 別監	
시갑	"	品官	品官	儒品官	儒品官								
계은	경신 子	品官	品官	校品官	儒品官	品官	學生	儒品官	學生	學生	學生	學生	
시관	계은 子	品官	品官	儒品官	儒品官	品官	儒品官		校生	掌議	學生	學生	
행권	시관 子								儒品官	幼學			
재권	"										幼學	留鄉 別監	
시철	"					品官	品官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계영	경신 子	品官	品官	儒品官	儒品官	品官	校生	校生	校生	校生	掌議	留鄉 別監	좌동
안평	계영 子				品官	品官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掌議	留鄉 別監		
안효	"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掌議	掌議	掌議	
안충	"								儒品官	幼學	掌議	掌議	
계인	경신 子	品官	品官	校生	校生	校生	校生	校生	校生	校生	掌議	掌議	學生
시반	계인 子	品官	品官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校生	幼學		學生	
권길	시반 子										幼學	幼學	
시행	계인 子				品官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幼學	幼學		
시안	"						儒品官	儒品官	儒品官	幼學			

연 이 름	비고	1897	1898	1899	1900	1904
일봉	가급 子					
세만	일봉 子					
재택	세만 子					
필태	재택 子					
수림	필태 子	學生				
익훈	수림 子	武科及第嘉善 大夫漢城府左 尹兼五衛都摠 府摠管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문규	익훈 子	學生	學生	學生		學生
시윤	문규 子					學生
은식	시윤 子					學生
상오	은식 子					掌議
시용	문규 子					
시목	"	掌議	掌議	掌議	掌議	掌議
은형	시목 子	掌議		掌議	掌議	掌議
시걸	문규 子					
문표	익훈 子	武科及第嘉善 大夫同知中樞 府事五衛將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시칠	문표 子	學生	學生	學生	學生	學生
은후	시칠 子	掌議	掌議	掌議	掌議	掌議
은성	"	掌議	掌議	掌議	掌議	掌議
은세	"	掌議	掌議	掌議	掌議	掌議
문혁	익훈 子					
시화	문혁 子					
익보	수림 子	出身				
문옥	익보 子	學生	學生	學生	學生	學生
시진	문옥 子	學生	學生	學生	學生	學生
은길	시진 子	掌議	掌議	掌議	掌議	掌議
은유	"		掌議	掌議	掌議	掌議

표를 통해 살펴본 송세만 일가의 직역 중에 통정·가선·통덕랑은 납속 또는 모칭·모록의 결과이고, 절충장군겸오위장은 실제 관직인데 이는 사망한 다음 추증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同知中樞府事·展力副尉·通德郎·通政大夫·訓練院奉事 등으로 보아 송세만 일가는 중인·평민집안이 분명하며, 이들 품계나 관직은 실제 과거에 합격하여 품계를 받고 관직을 역임한 것이 아니라 납속으로 취득한 것이거나,

모칭·모록의 결과이다. 43) 제주지역 지방군의 장교층에 해당하는 千摠·把摠·城將 등의 중인신분층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幼學이라는 직역은 자주 나타나는 것은 호적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문란해짐으로써 종전과 같으면 유학을 칭할수 없었던 사람들까지 대거 유학으로 표기되기 때문이다. 44)

또한 다른 지방과 달리 제주 지역의 호적에서만 나타나는 掌議는 향교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이고, 座首와 別監은 향청의 중요한 직책 즉, 鄉任을 말한다. 제주도의 경우 이러한 직역을 중요한 양반임을 상징하는 직역으로 내세우고 있는 현상은 매우 특이할 만하다. 45) 조선후기에 들어서면서 경제력이 있는 평민들이 좌수·별감 등의 향임직을 차지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향교에 평민들의 출입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이는 제주도의 양반의 경우 중앙관직을 얻을 기회가 적고, 과거에 응시할 가능성이 적었기 때문에 향교의 임원직과 향임직을 중시 여기고 양반 신분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직역 앞에 역을 면제 받는 復戶를 칭하는 경우도 나타나는데, 이때 복호가 되었을 경우 부역을 전적으로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대개의 경우 잡역을 면제받는 것으로 보여지며, 복호는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46)

19세기 중반이 되면 호적중초상에서 송세만 일가는 지방군 관련된 중인 신분인 천총·과총·성장의 직역마저 거의 보이지 않으며, 대부분 儒品官·閑良·校生·幼學·掌議 등으로 직역이 표기되고 있다.

이처럼 동일인이지만 시간에 따라 호적중초상에 직역이 표기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호적대장이나 호적중초상에 표기된 직역으로 신분·직역의 변화 비율을 도출하

43) 조선 초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제주도민이 중앙관료직에 진출한 경우는 매우 적었다. 물론 교통여건이 극히 나빠 서울로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한번 상경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시험일자를 알게 되어 또 떠나더라도 시험때에 맞춰 서울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 때문에 가끔 제주도민을 위해 제주에서 직접 시험관을 파견하여 과거를 실시하기도 했지만, 과거에 합격한다해도 대부분 명예를 얻는 것으로 그쳤으며, 실령 실직을 얻었다하더라도 대부분 제주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관직이었다.(조성운 앞의 논문 참조)

44) 명문세족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도 그가 과거 출신자나 전·현직 관료가 아니거나, 그리고 각종 품계의 소시자가 아닌한 으레 호적이나 향안에 유학이라 칭하는 것이 관례였다.(송준호, 『조선 사회사 연구』 일조각, 1987. p. 121)

45) 물론 다른 지방에서도 향청을 중심으로 하는 향임직과 향교의 임원직은 있지만 이것을 직역으로 내세우지는 않고, 일반 사족과 구별하여 鄉班이라고 낮추어 부르는 경우는 있다.(조성운 앞의 논문 참조)

46) 조성운, 앞의 논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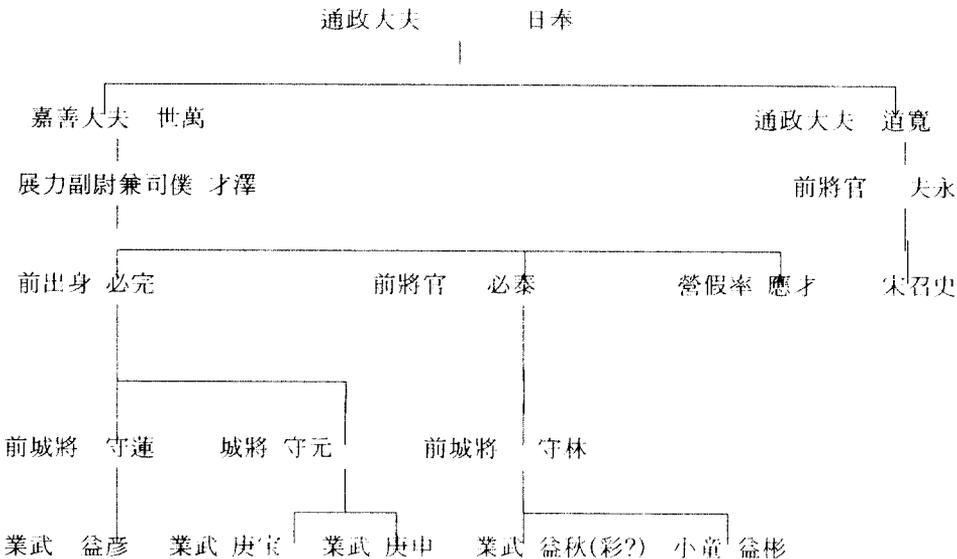
는 경우는 많은 무리가 있다는 것 또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IV. 宋世萬家の 사회·경제적 성장

1. 주물업 운영과 경제적 성장

주물업이 덕수리에 등장한 것은 약 250년 전인 18세기 중반으로, 당시 宋世萬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한다. 1804년의 호적중초상에는 宋世萬의 직역이 종2품 嘉善大夫로 나타난다.⁴⁷⁾ 이처럼 농업보다도 천시되는 주물업을 운영했던 송세만이 호적중초에 양반 직역으로 표기될 수 있었던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이지만, 아마도 주물업을 통해 경제적인 부를 얻음으로써, 이들이 사망한 다음 追贈이 되었거나 또는 그들을 속박하고 있던 신분적 굴레를 호적작성에 관여하는 임무를 맡으면서 모칭이나 모록을 통해 벗어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 山内弘一의 연구에 의하면, 生鐵匠·水鐵匠 등의 가호가 18세기 초반 호적에서 갑자기 다수로(7-17호) 나타나기 시작하여 존속하다가 18세기 후반 또는 19세기 초반에 모두 호적상에 이름이 보이지 않게 되는데 그 행방을 추적해 본 결과, 匠人の 존재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幼學·忠義衛 등으로 신분직역의

47) 1804년 호적중초에 나타난 宋世萬家の 가계표이다.



명칭이 바뀐다는 것이다.⁴⁸⁾

위의 경우처럼 송세만이나 또는 그 윗 세대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治匠이라는 표기가 아닌 한결같이 가선, 통정대부로 표기되고 있고, 송세만 이후는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대부분 중인 신분에 속하는 직역명이 표기되고 있고, 간혹 유향별감을 칭하는 직역이 나타나기도 한다.

여기서 왜 18-19세기에 걸쳐서 쇠를 취급하는 匠人이 다수 등장하게 되는가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만 해도 농업경제의 비중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농기구 수요의 증대 관점에서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18세기에 大小邑을 막론하고 도심부에 증가한 장인의 수는 여러 가지 수공업의 사회적 수요발생을 의미하며, 그 중 제일산업이었던 농업과 관련되었을 때, 18세기는 이앙법 및 1頭犁의 보급과 같은 농업기술상의 발전이 현저하게 일어난 시기로, 이러한 기술적 변화 아래에서는 농민층 분해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⁴⁹⁾ 아직 주물업의 어느 정도의 규모로 운영되었으며, 주요 소비처가 어디인지, 수익성이 어느 정도였는가에 대해선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송세만 일가의 주물업운영은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대정현 지역의 화전지대가 많았고, 본래 돌이 많은 경작지를 일궈 발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농기구의 수요가 있었으며, 송세만 일가는 이를 생산, 공급하여 경제적 부를 일궈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2. 통혼관계와 가족구성

지금까지의 신분과 관련된 연구성과들을 보면, 양반을 규정하는 경우는 신분제 사회에서 役이 없어야 하며, 선·후 세대간에 양반신분이 세습이동 되어야 하고, 양반 상호간에 신분 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송세만 일가를 비롯한 덕수리 주민들은 양반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일 신분내에서 통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굳이 양반끼리 해야 된다는 신념

48) 山内弘은 단성현의 여러 面중에 生鐵匠·水鐵匠 등의 匠人가호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縣內面 2개 리와 生比良面 2개 리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구 자료에서 선조 39년(1606) <산음현 호적대장의 일부>부터 정조13년까지의 14개 식년의 관련자료를, 신자료로부터는 순조 25·28년, 고종 원년(1864) 등의 3개 식년분의 관련자료(匠人 가호의 사례와 수)를 추출하여 분석·검토하였다. (山内弘, 앞의 논문 참조)

49) 이태진 「조선후기 양반사회의 변화-신분제와 향촌사회운영구조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발전사론』 일조각, 1992 pp. 191-196

도 없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집안, 어떤 성씨와의 통혼을 맺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부녀자들의 호칭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6. 송세만 일가가 혼인을 이루는 姓貫>

姓貫	수치(%)	姓貫	수치(%)
光山 金	5 (2.96)	軍威 吳	3 (1.78)
金海 金	42 (24.9)	海州 吳	3 (1.78)
慶州 金	12 (7.1)	和順 吳	1 (0.6)
羅州 金	2 (1.19)	南平 文	1 (0.6)
濟州 高	16 (9.5)	南陽 洪	4 (2.37)
濟州 梁	1 (0.6)	遼山 李	4 (2.37)
順興 安	2 (1.19)	全州 李	3 (1.78)
完山 李	1 (0.6)	羅州 丁	3 (1.78)
古阜 李	15 (8.9)	淸州 鄭	1 (0.6)
密陽 朴	8 (4.73)	東來 鄭	1 (0.6)
大邱 徐	1 (0.6)	昌寧 成	2 (1.19)
平山 申	1 (0.6)	綾州 具	1 (0.6)
平澤 林	5 (2.96)	昌原 車	3 (1.78)
豐川 任	1 (0.6)	晉州 姜	16 (9.5)
忠州 池	2 (1.19)	陽川 許	3 (1.78)
仁同 張	1 (0.6)	坡平 尹	1 (0.6)
水原 白	1 (0.6)	咸原 崔	1 (0.6)
星州 李	1 (0.6)		
합계	169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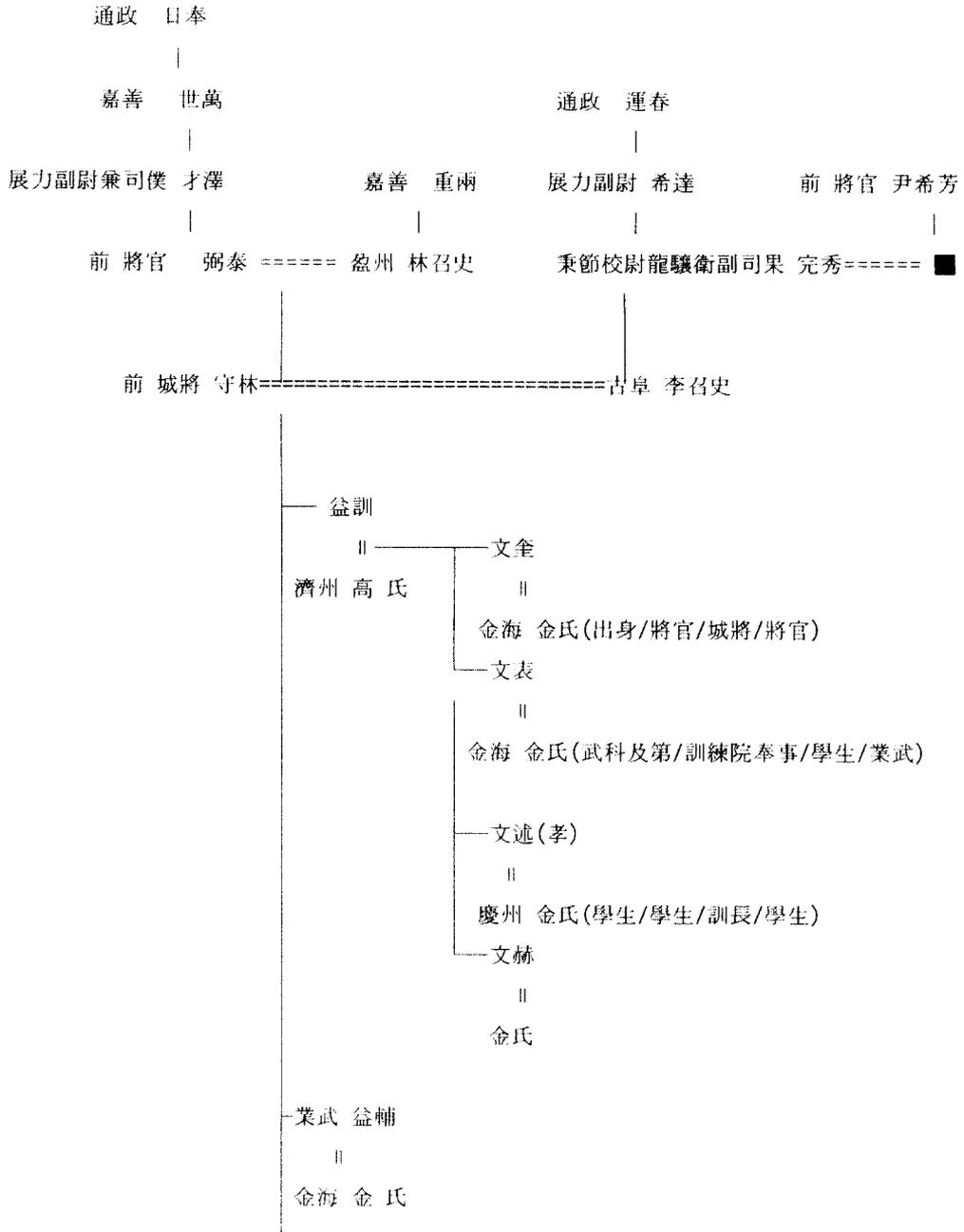
먼저 덕수리에 거주하는 송씨 일가는 대부분 김해 김씨(24.9%), 제주 고씨(9.5%), 경주 김씨(7.1%), 고부 이씨(8.9%), 밀양 박씨(4.73%)와 혼인을 하고 있다. 이는 덕수리에 김해 김씨, 경주 김씨, 여산 송씨가 많이 거주한다는 걸 염두에 두면 이들 대부분은 같은 마을내에서 통혼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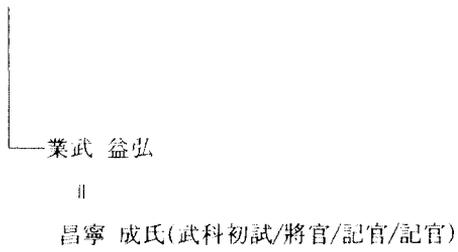
또한 비슷한 직역을 칭하는 집안과 혼인을 맺고 있으며, 또한 혼인이 이루어진후에 호주 4조의 직역을 모칭·모복하면서 처의 4조도 모칭·모복한 경우도 보인다.

다음은 이들의 구체적인 통혼관계를 호주 본인 4조와 그 호주 처의 4조를 비교함으로써 혼인을 통해 가족관계가 변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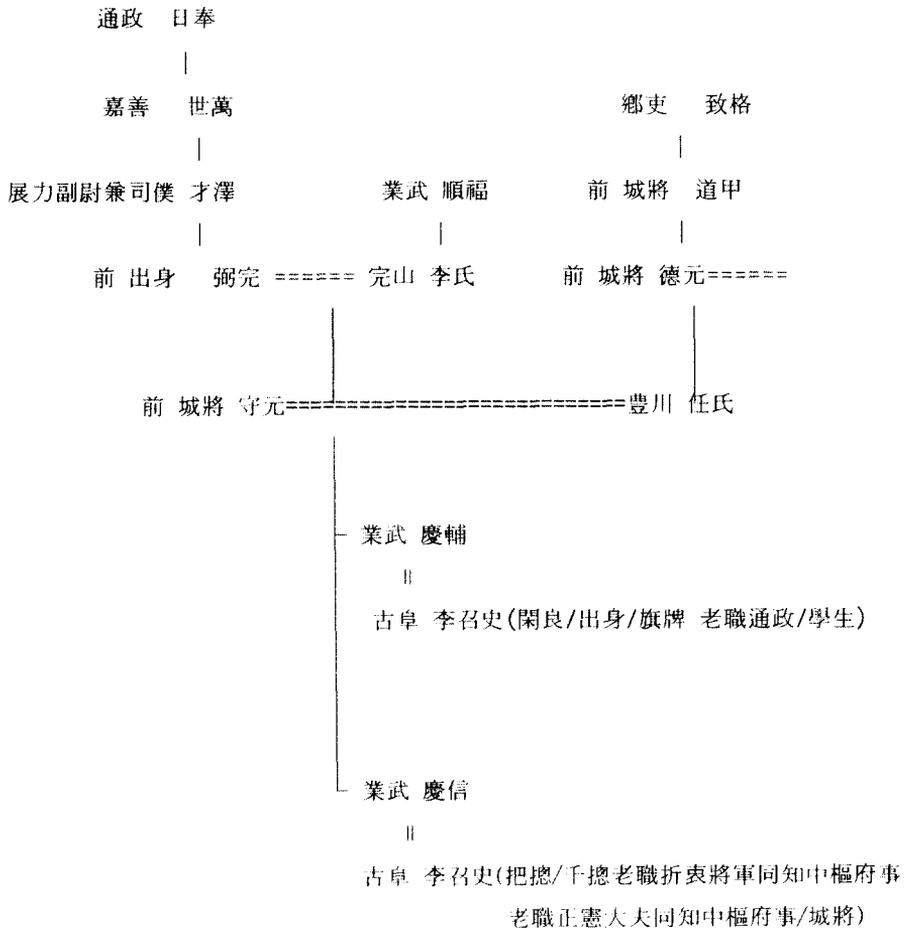
<宋世萬 一家의 통혼관계>

1) 송수림





3) 宋守元



덕수리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송씨일가는 그들의 직역이 성장·또는 천충·과충 등 중인 신분일 때 혼인을 하고 또한 그들의 처도 호주의 신분과 같은 ‘召史’라는 호칭을 칭하고 있었다.⁵⁰⁾

그러나 호적중초에 대부분 직역들이 신분상승을 이루듯이 부녀자들 또한 어떤 일정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대부분의 氏로 호칭이 되고 있다. 특히 송수림의 아들 익보나 익채의 처 4조가 동일한 직역을 칭하고 있음에도 익보의 처는 氏를 칭하고, 익채의 처는 召史를 칭하고 있는데 이는 서서히 이들의 호적 작성에 관여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호주 본인의 직역뿐만 아니라 처의 호칭, 호주와 처의 4조의 직역까지 변화시켜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집안의 양반 직역은 대부분 모칭·모록, 추증의 결과이며 또한 이들이 좌수·유향별감 등 향임직으로 모칭을 하더라도 기존 양반 집단 구성원들과는 통혼하지 않았고, 이들로부터 향교 출입이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특이할 만하다.

V. 맺음말

호적자료는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신분질서 및 그 변동양상에 대한 연구에 있어 주된 자료가 된다. 이들 자료가 직역기재의 비실제성, ‘직역’과 ‘신분’의 불일치, 많은 漏籍들과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료만큼 1세기 이상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어느 한 지역에 거주한 주민의 신분구성의 변화모습, 한 개인 및 가문의 신분·직역의 변화되는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본고는 송세만 일가가 덕수리에서 주물업의 운영을 통해 경제적 부를 획득한 후 신분·직역의 변화되어 가는 사회적 성장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족보와 비교를 함으로써 호적중초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먼저 덕수리의 호적중초의 특징을 살펴보면 1804-1908년에 이르기까지 100여 년에 걸쳐 작성되었기 때문에 개개인의 직역변동양상을 직접적으로 살필 수가 있으며, 다행히도 대부분의 구성원들의 호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고 고정적이었다. 특히 남자들은

50) 조선시대 호적대장에서 부녀자의 호칭인 氏·召史·姓 등으로 이들이 신분의 높고 낮음을 구별하여 사용되어 왔다.(부녀자의 호칭과 관련해서는 이준구, 「부녀자의 호칭문제」 『조선후기 신분직역변동연구』 일조각, 1993 참조)

나이와 이름이 빈번하게 바뀌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는 1인 10억의 부담을 안고 있던 역의 부담에서 회피하려는 방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이혼, 재혼을 하게 되면 특이하게도 한 집안에 전처의 가족까지 한 호에 편제되는 경우도 있었다.

호적중초상에 등재된 구성원의 혈연관계를 검토해본 결과, 1828년을 정점으로 주호 부부를 중심으로 한 직계존비속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대신, 방계가족이 증가추세를 보인다. 이는 생존을 위해서는 경제력이 허락하는 한 가난한 방계의 가족까지도 가족 구성원으로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초상에 나타나 호구수와 호수의 표기를 도표로 살펴본 결과, 1808년-1825년에 호수와 구수의 증가는 대정현 지역이 화전 경작지로 대두하면서 삼읍의 인구가 점차 대정현 지역으로 유입되는 현상으로 19세기이래 무항산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山僻土沃’ 한 대정현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상황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덕수리 지역은 화전 경작지대였고, 대정현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은 한정된 지역에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화전경작이 더욱 조장되기에 이르렀다. 관아에서의 화전세 남징은 나아가 대정현 지역에서의 민란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자 단리는 1831년에 신당리로 개칭하였다가 1840년에 덕수리로 개명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마을에 비해 호수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마을의 분리과정을 일정하게 반영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896년 이후의 호적은 기존과 달리 10家를 단위로 작통되었고, 「호구조사세칙」이 반포되면서 부모·형제라도 분거하면 원칙적으로 분호해야하는 원칙을 따랐기 때문에 구수의 변화없이 호수만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1896년을 이후로 가정을 이룬 자녀들은 부모의 가호에서 분리되어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이혼 또는 재혼을 하게되면, 전처의 가족까지 한 집에 거주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화전지대였던 덕수리의 경우도 다른 지역과 같이 18세기 이후 농업기술상의 발전으로 농기구의 수요가 꽤 있었을 것이며, 주물업을 통해 이들 제품을 공급해서 경제적 부를 획득한 송세만이나 그 윗세대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治匠이라는 직역이 표기되지 않고, 한결같이 가선, 통정대부로 표기되고 있으며, 점차 양반 직역화해나가기 위해 처의 호칭뿐만 아니라, 妻系에 대한 모칭 모록이 사례가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후대가 없는 礮족의 이후시기로 편보되기도 했다. 즉, 여산송씨 1797년, 1891년 어느 족보에서도 礮이후 대는 찾아볼 수 없으며, 족보의 체제 또한 礮의 시기 이후는 완전 치가 못하여 그들 개개인의 생몰년 추정 뿐만 아니라, 선후 세대간 생몰년 추정도 어

럽다. 그리고 부녀자의 기록은 淑夫人, 貞夫人을 칭하고 있지만 그들의 父에 대한 기록마저 거의 없고, 생몰년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족보는 사문서인 동시에 공문서로서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족보를 증빙서류로 삼아서 郡역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족보를 위조할 경제적 형편이 되는 한 평민들은 이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추구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족보마저 위조함으로써 그들의 위상을 현양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세기 중반이 되면 호적중초상에서 송세만 일가는 지방군 관련된 중인 신분인 典 簿· 典 史· 典 簿· 典 史의 직역마저 거의 보이지 않으며, 대부분 儒品官· 閑良· 校生· 幼學· 掌議 등으로 직역이 표기되고 있다.

이처럼 동일인이지만 시간에 따라 호적중초상에 직역의 표기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호적대장이나 호적중초상에 표기된 직역으로 신분·직역의 변화 비율을 도출하는 경우는 많은 무리가 있다는 것 또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參 考 文 獻

1. 史料

- 『備邊司謄錄』 『承政院日記』 『新增東國輿地勝覽』
『朝鮮王朝實錄』 『增補文獻備考』
『戶口總數』 서울대 고전간행회, 1971
『戶籍謄關冊』奎章閣圖書 No.12332.
『濟州牧關牒』奎章閣圖書 No.15125.
『濟州啓錄』奎章閣圖書 No.15099.
『耽營關報錄』 「邸史救弊節目」奎章閣圖書 No. 19382.
『耽羅啓錄』 「耽羅防營摠覽」
『韓國地理學叢書 各道邑誌』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4
『濟州大靜旌義邑誌』奎章閣圖書 17436.
『濟州邑誌』奎章閣圖書 10796.
李元鎮, 『耽羅誌』
李衡祥, 『瓶窩全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李源祚, 『耽羅錄』 『耽羅誌草本』
丁若鏞, 『牧民心書』 창작과비평사, 1978
『戶籍所定式條例成冊』
『三邑戶籍人口穀及統籍米求弊節目』
『戶籍人總穀總分排定例』 「戶籍紙本錢設置節目」
金淨, 『濟州風土錄』
金尙憲, 『南槎錄』
李健, 『濟州風土記』
金錫翼, 『耽羅紀年』
『礪山宋氏大同譜』
탐라문화총서(Ⅱ) 『濟州大靜縣德修里戶籍中草』 (Ⅰ~Ⅳ),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3
『濟州東伍軍籍簿』 제주시·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1

2. 研究書

- 강만길 엮음,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 비평사, 2000
- 고창석 외, 『19세기 제주사회연구』 일지사, 1997
- 近代史研究會 編, 『韓國中世社會解體期の 諸問題』(上·下), 한울, 1987
- 김두헌, 『韓國家族制度史研究』 서울대출판부, 1969
- 김영모, 『朝鮮支配層研究—官僚兩班의 社會的 考察—』 일조각, 1977
- , 『韓國社會階層研究』 일조각, 1982
- 김용섭, 『증보판 조선후기농업사연구(Ⅰ)』, 지식산업사, 1995
- 김현영, 『조선시대의 양반과 향촌사회』 집문당, 1999
- 백승중, 『韓國社會史研究—15-19세기 전라도 태인현 고현내면을 중심으로—』, 일조각, 1996
- 四方博, 『朝鮮社會經濟史研究』中, 國書刊行會, 1987
- 송준호, 『朝鮮社會史研究』 일조각, 1987
- 송찬식, 『조선후기 사회경제사의 연구』 일조각, 1997
- 이광규, 『한국의 家族과 宗族』 민음사, 1990
- 이수건, 『韓國中世史會史研究』 일조각, 1984
- 이영훈, 『朝鮮後期 社會經濟史』 한길사, 1988
- 이준구, 『朝鮮後期身分職役變動研究』 일조각, 1993
- 이창기, 『濟州島의 人口와 家族』 영남대출판부, 1999
- 이태진, 『韓國社會史研究』 지식산업사, 1986
- , 『朝鮮儒敎社會發展史論』 지식산업사, 1989
- 이해준 외, 『조선시기 사회사연구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 이해준, 『朝鮮時期 村落社會史研究』 민족문화사, 1996
- 이화여대 사학과연구실편역, 『조선신분사연구--신분과 그 이동--』, 법문사, 1987
- 정석중, 『朝鮮後期社會變動研究』 일조각, 1993
- 武田幸男, 調査研究報告(occasional papers) No. 13 朝鮮戶籍臺帳の基礎的研究--19세기 慶尙道鎭海縣의 戶籍臺帳を通じて--,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 1983
- 武田幸男 編, 調査研究報告(occasional papers) No. 27 朝鮮後期の慶尙道丹城縣における 社會動態の研究--朝鮮戶籍臺帳の基礎的研究(2)--,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 1991
- , 調査研究報告(occasional papers) No. 33 朝鮮後期の慶尙道丹城縣に おける社

會動態の研究(Ⅱ)--朝鮮戶籍臺帳の基礎的研究(3)--,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 1997

주보돈 외, 『韓國社會發展史論』 일조각, 1992

최재석, 『濟州島의 親族組織』 일지사, 1979

최흥기, 『韓國戶籍制度史研究』 서울대출판부, 1975

平木實, 『朝鮮後期奴婢制研究』 지식산업사, 1989

한국역사연구회 엮음, 『한국역사입문②--중세편-』 풀빛, 1995

한역연 조선시기 사회사연구반,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이카넷, 2000

3. 연구논문

강창룡, 「17·18세기 제주 향촌사회 구조와 성격」 『濟州島研究』 8, 제주도연구회, 1991

고광민, 「제주도 쟁기의 형태와 발갈이 방법」 『韓國의 農耕文化』 2집, 경기대출판부, 1987

-----, 「濟州島 穡達·中文·大浦마을의 農業技術」 『韓國의 農耕文化』 4집, 경기대 박물관, 1994

고동환, 「조선후기 서울의 인구추세와 도시문제 발생」 『역사와현실』 28호, 한국역사연구회, 1998

고창석, 「朝鮮後期 濟州 供彼錢의 設置와 弊端」 『제주도사연구』 2집, 제주도사연구회, 1992

계승범, 「朝鮮後期 丹城地方 挾川 李俊男 家系の 職役과 身分」 『고문서연구』 3, 1992

권내현, 「朝鮮後期 戶籍의 作成過程에 대한 分析」 제43회 동양학 학술회의--조선사회구조의 재인식을 위하여 I-- 발표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한국역사연구회, 2000

권인혁, 「哲宗朝 濟州民亂의 檢討 — 濟州牧按覈狀啓騰錄을 중심으로—」 『邊太燮博士 華甲紀念史學論叢』 삼영사, 1985

-----, 「19世紀 前半 濟州地方의 社會經濟構造와 그 變動」 『李元淳教授華甲紀念史學論叢』 교학사, 1986

-----, 「19세기 초 梁濟海의 謀變實狀과 그 性格」 『耽羅文化』 7, 제주대탐라문화연구

- 소, 1988
- , 「朝鮮後期 地方官衙 財政의 運營實狀: 濟州의 《事例》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16,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6
- 권기중, 「조선후기 단성현의 향역분포와 鄕役繼承양상」 『조선사회구조의 재인식을 위하여Ⅱ, 발표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한국역사연구회, 2001
- 권태환·신용하, 「朝鮮王朝時代 人口推定에 關한 一試論」 『東亞文化』 14집, 1977
- 김건태, 「朝鮮後期 人口把握의 實狀과 그 性格」 『제43회 동양학 학술회의—조선사회구조의 재인식을 위하여Ⅰ, 발표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한국역사연구회, 2000
- , 「戶籍大帳의을 동해본 戶의 구성과 편제원리」 『조선사회구조의 재인식을 위하여Ⅲ, 발표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한국역사연구회, 2001
- 김경란, 「단성호적에 나타난 女性主戶의 기재실태와 성격」 『조선사회구조의 재인식을 위하여Ⅱ, 발표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한국역사연구회, 2001
- 김동진, 「朝鮮朝 濟州地方縣監의 實態分析 — 『濟州 大靜 旌義邑誌』의 先生案條를 중심으로—」 『濟州島研究』 2집, 1985
- , 「朝鮮時代 濟州島의 郡縣構造와 支配體制」 『濟州島史研究』 창간호, 제주도사연구회, 1991
- , 「18·19세기 畝漢의 신분적 지위와 그 변동」 『역사민속학』 3호, 한국역사민속학회, 1993
- , 「19세기 戶籍制運營의 弊端과 對策 — 제주지방 호적관련 節目을 중심으로—」 『濟州文化研究』, 玄旨金榮敦博士華甲紀念文集刊行委員會編, 1993
- , 「18·19세기 濟州島 鄕吏의 身分變動」 제주도연구회 학술발표요지, 1993
- , 「濟州牧 官衙施設」 『古文化』 42·43합집, 1993
- , 『18·19世紀 濟州島의 身分構造 研究-大靜縣 「戶籍中草」를 중심으로-』, 단국대박사학위논문, 1995
- , 「朝鮮後期 濟州島 住民의 身分構造와 그 推移」 『국사관논총』 65, 국사편찬위원회, 1995
- 김석희, 「朝鮮王朝後期の 慶尙道 丹城縣 戶籍大帳에 대하여」 『부산대학교문리대학논

- 문집』 14집(인문사회과학편), 1975
- · 박용숙, 「朝鮮王朝後期の 慶尙道 丹城縣戶籍大帳에 關하여(II)」 『부산대문리대논문집』 17집(인문사회과학편), 1978
- · 박용숙, 「18세기 農村의 社會構造 — 慶尙道 丹城縣의 경우—」 『부대사학』 3집, 1979
- , 「慶尙道 丹城縣 戶籍大帳에 關한 研究 — 18世紀 逃亡·移去戶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24, 1983
- , 「朝鮮後期 慶尙道 彦陽縣 戶籍大帳에 關하여」 『부대사학』 7집, 1983
- , 「18·19세기 戶口의 實態와 身分變動 — 新例 彦陽縣 戶籍大帳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26, 1984
- , 「朝鮮後期 地方社會史 研究動向과 課題— 戶籍大帳 研究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5, 1992
- 김영모, 「朝鮮後期の 身分構造와 그 變動」 『동방학지』 26, 1981
- 김용섭, 「朝鮮後期에 있어서의 身分制의 動搖와 農地 所有一尙州量案 研究의 一端—」 『史學研究』 15, 1963(『增補版 朝鮮後期 農業史研究』 I, 지식산업사, 1995)
- 김인걸, 「朝鮮後期 鄉村社會構造의 變動」 『邊太變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삼영사, 1985
- , 「조선후기 신분사 연구현황」 『韓國中世社會 解體期の 諸問題(下)』, 近代史研究會編, 한울, 1987
- , 「조선후기 향촌사회 권력구조 변동에 대한 시론」 『韓國史論』 19, 1988
- 김준형, 「조선후기 단성지역 사회변화의 역사적 특성」 제43회 동양학 학술회의—조선사회구조의 재인식을 위하여 I— 발표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한국역사연구회, 2000
- 김혜숙·김행신, 「가족구조와 주거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제주도 민가를 중심으로—」 『논문집』 33, 제주대, 1991
- 남도영, 「朝鮮牧子考」 『東國史學』 8, 1965
- 노영구, 「戶籍大帳 作研究現況과 電算化의 一例」 제43회 동양학 학술회의—조선사회구조의 재인식을 위하여 I— 발표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한국역사연구회, 2000
- 노진영, 「17世紀初 山陰縣의 社會構造와 그 變動」 『歷史教育』 25, 1979
- 文守弘, 「朝鮮時代 納贖制 實施에 대하여: 그 背景을 중심으로」 『溪村閔丙河教授停年

- 『紀念史學論叢』 1988
- 박성수, 「雇工研究」 『史學研究』 18, 1964
- 박성식, 「18세기 丹城地方의 社會構造—丹城戶籍所載 職役別統計를 中心으로—」 『대구사학』 15·16집, 1978
- 박용숙, 「朝鮮後期の 婚姻實態—1717년의 丹城戶籍을 中心으로—」 『부대사학』 4집, 1980
- , 「18·19世紀의 奴婢와 雇工—慶尙道 彦陽縣 戶籍의 分析—」 『인문논총』 26, 1984
- , 「朝鮮後期 鄉村社會構造에 관한 研究—18·19세기 同姓婚을 中心으로—」 『부산사학』 8, 1984
- , 「朝鮮後期の 挾戶—丹城戶籍의 事例를 中心으로—」 『부산대사대논문집』 14, 1987
- , 「18·19世紀의 雇工—慶尙道 彦陽縣 戶籍의 分析—」 『부대사학』 7집, 1983
- 박찬식, 「17, 18세기 濟州島 牧子의 실태—李衡祥의 ‘耽羅狀啓抄’를 中心으로—」 『濟州文化研究』 玄旨 金榮敦博士華甲紀念論文集 刊行委員會 編, 1993
- 박현순, 「조선후기 단성현의 面里 편제」 『조선사회구조의 재인식을 위하여Ⅲ, 발표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한국역사연구회, 2001
- 백승중, 「慶尙道 丹城縣 都山面 文太里의 私奴 興宗과 興龍一家—1678년부터 1789년까지—」 『震檀學報』 70, 1990
- , 「호적의 말하는 민중의 삶」 『한국사시민강좌』 22집, 일조각, 1998
- , 「위조족보의 유행」 『한국사시민강좌』 24집, 일조각, 1999
- , 「19세기 초 제주도 대정현 덕수리의 유동적인 가족구조-儒敎의 가족관념과 동떨어진 사회현실-」 한국고문서학회 발표문, 1999. 4
- 四方博, 「李朝人口に關する身分階級別的觀察」 『朝鮮經濟の研究』 3, 1938; 四方博 朝鮮社會經濟史研究 中, 國書刊行會, 1987
- 山內弘一, 「工匠의 行방—丹城縣 戶籍大帳에 의한 生鐵匠·水鐵匠의 事例研究—」 『朝鮮後期の慶尙道丹城縣における社會動態の研究(1)』 (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조사연구보고 NO. 27, 1991)
- 서의필, 「18세기 蔚山地方 鄉班社會研究—身分變化를 통해서 본 社會變動」 『승전어문학』 3, 1974
- 서한교, 「17·18세기 納粟策의 實施와 그 成果」 『역사교육논집』 15, 1990

- , 「朝鮮 顯宗·肅宗代の 納贖制度와 그 機能」 『대구사학』 45집, 대구사학회, 1993
- , 「17·18세기 丹城地方 納贖人の 實態와 身分變動」 『歷史教育論集 23·24합집-水如黃海鵬教授停年退任紀念史學論叢』 대구 역사교육학회, 1999
- 손병규, 「戶籍大帳 職役欄의 軍役記載와 ‘都邑上’의 통계」 제43회 동양학 학술회의—조선사회구조의 재인식을 위하여 I— 발표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한국역사연구회, 2000
- , 「총론: 호적대장의 職役記載 양상과 의미」 『조선사회구조의 재인식을 위하여 II, 발표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한국역사연구회, 2001
- 송양섭, 「18·19세기 단성현의 軍役과악과 운영」 『조선사회구조의 재인식을 위하여 III, 발표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한국역사연구회, 2001
- 송준호, 「신분제를 통해서 본 조선후기 사회 성격의 일면」 『역사학보』 133, 1992
- 수잔 신, *The Social Structure of Kumhwa Country in the Late Seventeenth Century, ccasional Papers on Korea No. 1*(Revised edition 1974); 「17세기 金化地域의 社會構造」 『朝鮮身分史研究』 법문사, 1987
- 심재우, 「조선후기 단성현 범물야면 幼學戶에의 분표와 성격」 『조선사회구조의 재인식을 위하여 II, 발표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한국역사연구회, 2001
- 有井智德, 「李朝初期の戶籍法について」 『朝鮮學報』 30·40합집, 1966
- 은기수, 「조선후기 인구자료로서의 호적에 관한 일연구」 『한국 사회의 신분계급과 사회변동』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8집, 1987
- , 「조선 후기 호적과 족보를 이용한 인구와 가족의 재구성 -단성현 안동권씨 상암선생과를 한 예로-」 『韓國의 社會와 文化 第25輯』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 이광규, 「朝鮮朝 後期の 社會構造와 變動—蔚山地域 戶籍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5, 1984
- 이수건, 「朝鮮初期 戶口研究」 『論文集』 5집, 영남대학교, 1972
- , 「朝鮮初期 戶口の 移動現象」 『한국학논총—霞城李瑄根博士古稀紀念論集』 형설출판사, 1974

- , 「古文書を 통해 본 朝鮮社會史의 一研究」 『韓國史學』 9, 1987
- 이영훈, 「古文書を 통해 본 朝鮮時代 奴婢의 經濟的 性格」 『한국사학』 9, 1987
- 이준구, 「朝鮮後期 兩班身分 移動에 관한 研究—丹城帳籍을 중심으로—」 (上·下) 『역사학보』 96·97, 1982·1983
- , 「朝鮮後期 身分構造 理解의 諸問題 檢討」 『대구사학』 34, 1988
- , 「朝鮮後期の 閑良과 그 지위」 『국사관논총』 5집, 1989
- 이창기, 「濟州島의 性別 年齡別 人口構成」 『人口保健論集』 2권 2호, 1982
- , 「濟州島의 人口成長」 『탐라문화』 창간호, 1982
- , 「濟州島의 家口構成」 『人文研究』 9집, 1988
- 이태진, 「朝鮮後期 兩班社會의 變化—신분제와 향촌사회 운영구조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발전사론』 일조각, 1992
- 이해준, 「朝鮮後期 晋州地方 儒戶의 實態—1832년 晋州鄉校修理記錄의 分析—」 『震檀學報』 60, 1980
- 林學成, 『17·18세기 丹城地域 住民의 身分變動에 관한 研究』 인하대박사학위논문, 2000
- 전경목, 「19세기 말에 작성된 南原 屯德坊의 戶籍中草와 그 성격」 『고문서연구』 3, 1992
- 정덕기, 「朝鮮王朝時代 戶口變遷의 社會經濟史的研究」 『湖西史學』 2집, 1973
- 井上和枝, 「李朝後期慶尙道丹城縣의 社會變動—學習院大學藏丹城縣戶籍大帳研究—」 『學習院史學』 23, 1985
- 정석중, 「朝鮮後期 社會身分制의 崩壞—蔚山府戶籍臺帳을 중심으로—」 『19世紀의 韓國社會』 대동문화연구원, 1972
- , 「朝鮮後期 社會勢力의 動向과 政變—肅宗年間의 甲戌換局과 中人·商人·武人의 政變參與를 중심으로—」 『韓國史學』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 정승모, 「朝鮮後期 丹城縣의 身分構成比 變化와 그 動因」 『泰東古典研究』 9, 1993
- 정진영, 「18—19세기 호적대장 ‘戶口’ 기록의 검토」 제43회 동양학 학술회의—조선사회구조의 재인식을 위하여 I— 발표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한국역사연구회, 2000
- , 「18세기 호적대장 ‘호’와 그 경제적 기반—1714년 대구 조암방 호적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39호, 한국역사연구회, 2001
- , 「조선후기 戶籍 ‘戶’의 편제와 성격」 『조선사회구조의 재인식을 위하여III, 발

- 표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한국역사연구회, 2001
- 정해은, 「戶籍大帳에 등재된 戶의 출입」 『조선사회구조의 재인식을 위하여Ⅲ, 발표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한국역사연구회, 2001
- 조성윤, 「조선후기 제주도 지방의 신분구조」 『한국의 전통사회와 신분구조』 문학과지성사, 1991
- , 「조선후기 제주도 지배세력에 관한 연구-경주 김씨가의 호구단자를 중심으로-」 『濟州島史研究』 2집, 제주도사연구회, 1992
- 濟州大學校 國語國文·國語教育科, 「安徳面 德修里 調査報告書」 『學術調査報告書』 7, 1982
- 지승중, 「朝鮮後期 社會와 身分制의 動搖」 『한국의 사회와 문화』 10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 津波高志, 「제주도의 통혼권」 『제주도언어민속논총』 (현용준박사 회갑기념논총) 제주문화, 1992
- , 「濟州の通婚圈に關する再檢討-安徳面德修里の事例を中心に-」 『탐라문화』 20, 1999
- 최근묵·한기범, 「17世紀의 同姓婚—丹城戶籍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소논문집』 9-2, 충남대, 1982
- 최승희, 「戶口單子·准戶口에 대하여」 『奎章閣』 7, 1983
- , 「朝鮮後期 鄉吏身分變動與否考—鄉吏家門 古文書에 의한 事例研究—」 『金哲坡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지식산업사, 1983
- , 「朝鮮後期 鄉吏身分變動與否考(2)—草溪卞氏鄉吏家門의 古文書에 의한 事例研究—」 『韓國文化』 4,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83
- , 「朝鮮後期 身分變動의 事例研究—龍宮縣 大丘白氏家 古文書의 分析—」 『邊太燮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 삼영사, 1985
- 최재석, 「朝鮮後期 都市家族의 形態와 構成—大邱戶籍을 중심으로—」 『人文論輯』 19, 고려대, 1974
- , 「朝鮮後期 常民의 家族形態—谷城縣戶籍을 중심으로—」 『湖南文化研究』 7, 1975
- 한기범, 「17世紀初 丹城縣民의 身分構成—戶籍分析을 중심으로—」 『호서사학』 10집, 1982
- 한영국, 「府의 戶口와 그 身分分布」 『大邱市史』 1권, 1973

- , 「18·19세기 大邱地域 社會變化에 관한 一試論—大邱府戶籍의 「新戶」를 중심으로—」 『朝鮮學報』 80, 1976
- , 「朝鮮後期の 雇工—18·19世紀 大邱戶籍에서 본 그 實態와 性格—」 『역사학보』 81, 1979
- , 「豆毛岳考」 『韓祐勳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지식산업사, 1981
- , 「朝鮮後期の 挾人·挾戶—彦陽縣 戶籍大帳의 挾戶口를 중심으로—」 『千寬宇先生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 정음사, 1985
- , 「朝鮮王朝 戶籍의 基礎的 研究」 『한국사학』 6, 1985
- , 「朝鮮 初期 戶口統計에서의 戶와 口」 『東洋學』 19집, 1989
- , 「조선왕조호적대장의 탐구」 『한국사시민강좌』 24집, 1999
- 한영우, 「미국내 한국 신분자료 및 조선시대 신분사 연구동향에 대한 연구」 『한국사론』 13, 1985

140110

ABSTRACT*

The research of Hojeokjungcho(family register) in Ducksuri, Jeju
-with the focus on Yeosan Song's family in 19th century-

Young-Sim Oh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aejon,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eun-Mook Choi)

This thesis examines the aspects social development of status(身分)and occupation(職役) after the Seman-Song(宋世萬)family attain the economical wealth through running foundry in Ducksuri(德修里) and investigates the accuracy of the Hojeokjungcho(family register) by comparing with a genealogical table(族譜)

There have been many examinations using a Hojeok(family unit). In the early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conferred in February 2002.

investigations the meaning of the status that each occupation has was ignored. The status was treated same as occupation.

The change rate was shown just by statistical analysis of status and occupation in one area, so the range of change rate was incorrect.

But as the recently research like a member of Hojeokdaejang(family register) and the principle upon which it is organized of the Ho(family unit)shows the interest about the Ho(family unit) of Hojeokdaejang(family register) is increased.

Because Hojeokjungcho(family register) of Ducksuri(德修里) was made for almost 100 years from 1804 to 1908 we can see the aspect of occupation change rate directly.

Fortunately most of the members was hardly left out of the family register and settled.

Especially men's age and name was changed frequently it is the way for men to avoid the burden of one person ten duty.

When people divorce or remarry, the family of ex-wife was included in Ho(family unit).

The result of survey of blood relationship recorded in Hojeokjungcho(family register) shows that the meaning of relative was meaningful in Ducksuri(德修里) because lineal relative was included as the members of a family for the survival as far as the economic ability permits.

According to Hojeokjungcho(family register), Gadanri(自丹里) was changed to Sindangri(新堂里) in 1831 and renamed Ducksuri(德修里) in 1840.

During this renaming session, a number of the family unit(戶數) was decreased compared with the existing village. And it reflected the the course of the village separation regularly.

Examining the record of Seman-Song and a forefather, they have been marked on Gasundaebu and Tongjeongdaebu(an official rank in chosun dynasty), not marked a (black) smith(冶匠), after Yeosan Song's family attain the economical wealth through running foundry.

In the Chosun dynasty a genealogical table(族譜) played a role as both private and public document, people could avoid military service(軍役) by showing the

genealogical table(族譜) as the documentary evidence.

Accordingly the commoners who have the wealth to forge the genealogical table pursued the practical benefit.

I must, therefore, conclude that this is the result of deceiving social status(冒稱) and forgeries(冒錄).

They tried to be free from the bondage of social positions and made many efforts to raise their positions.